

제 6장

생업과 공동생활

생 산 민 속

공동노동조직과 협력체계

생 산 민 속

- 상업, 농업, 어업 -

주 영 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1. 서론
- 2. 본론
 - 1) 농업민속
 - 2) 어업민속
 - 3) 상업민속
- 3. 결론

1. 서 론

고양시는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산구와 농업적 기반을 기초로 하여 주거지로 변모하는 과정에 놓여있는 턱양 구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근교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고양시는 1991년부터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을 했다. 특히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로 했던 현재의 일산구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농업적 기반에서 나온 각종 문화현상들이 많이 사라졌다. 동시에 원주민들보다 이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생업에 기초한 지역문화의 특성도 변했다. 따라서 오늘날 고양시는 원래 존재하던 문화적 특성이 일부분 존재하면서 도시적 삶에서 배태된 문화적 양상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에 놓여 있다.

사실 1991년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 고양시 일대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은 농경지가 분포한 곳 중의 하나였다. 한강의 범람에 의해서 형성된 토사층은 논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지질을 제공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일산 신도시에 있었던 논에서 생산된 ‘일산 쌀’은 이 지역의 특산물로 이름이 났다. 일산 쌀은 다른 지방의 것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며 밥을 지으면 기름지고 감칠맛이 뛰어났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는 쌀 농사 외에도 보리나 밀농사가 이루어졌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울을 대상으로 한 근교 농업이 활발하게 행해졌다. 주로 배추·오이·고추·가지·열무·무 등과 같은 채소와 토마토·참외·수박·배 등의 과수 작물을 생산하여 서울에 제공했다. 또 이 무렵부터 일부 농가에서는 젖소를 기르기도 했다.

동시에 비록 농업에 기초한 생업 활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상업과 어업 활동도 고양시의 역사에서 핵심에 놓여 있었다. 특히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특성은 고양시 일대를 상업의 요충지로 만들었다. 조선시대 상업의 주요 통로였던 한강을 옆에 끼고 있었던 옛 고양시는 서울의 마포와 밤섬으로 이어지는 수로의 중간 정박지였다. 오늘날의 이산포와 행주나루에는 황해도·충청도·전라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물자를 실은 배가 연결되었다. 따라서 한강에 기대어 이 지역주민들이 행했던 어업활동도 비교적 활발했다. 특히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접지에 있었던 행주나루는 각종 물고기를 어획하는 소규모 어업이 활발했고, 자연스럽게 어촌이 형성되었다. 더욱이 지형적으로 자연 포구를 형성하고 있었던 행주나루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도 성업을 이루었던 포구였다. 이에 비해 이산포는 1925년 한강을 축년 대홍수로 인해 한강변에 제방이 쌓이면서 제구실을 잃어버렸다.

고양시는 조선시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로와 함께 한양과 의주를 관통하는 관서대로(關西大路)가 지나가는 곳이었다. 조선시대 대로(大路)는 총 9개가 있었는데, 제1호가 한양과 평안도 의주, 제2호가 한양과 함경도 경흥, 제3호가 한양과 경상도 평해, 제4호가 한양과 경상도 동래, 제5호가 한양에서 한강과 서해를 경유하여 경상도 통영, 제6호가 한양에서 노량진을 경유하고 서해를 지나서 경상도 통영, 제7호는 한양과 서해를 거쳐서 제주, 제8호가 한양과 서해를 거쳐서 충청도 보령, 제9호가 한양과 경기도 강화를 잇는 길이었다. 이 중에서 제1호 길을 다른 말로 '관서대로'라 불렀다. 관서대로는 한양에서 고양관아(지금의 고양동)까지의 고양로(高陽路)가 첫길이었다. 서대문에서 출발한 고양로는 고양관아를 바로 앞에 두고 벽제역(碧蹄驛)에 닿았다. 관서대로는 벽제역에서 혜음령을 넘어 파주관아로 연결되었다. 고양관아에서는 다시 파주의 교하(交河)와 이산포, 그리고 행주나루로 이어지는 간로(間路)가 있었다. 이산포에서는 나룻배로 김포(金浦)로 연결되었고, 행주나루에서는 나룻배로 양천(陽川)의 공암(孔巖)과 닿았다. 각각의 간로 사이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간로와 간로가 만나는 지점이 상업적인 요충지 구실을 했다.

이런 점에서 전근대시대의 고양시 일대는 관서대로의 고양로와 하위지역으로 이어지는 간로, 그리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나룻길 등의 수륙양로(水陸兩路) 교통망이 관통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농업·어업·상업이 동일한 지역적 체계 내에서 교통망과 함께 연결되었다. 그러나 1908년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로인 경의선이 완전 개통되면서 종래 고양시의 경제적 체계는 철로를 중심으로 변했다. 비록 여전히 농업을 기초로 한 경제구조였지만, 일산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까지 경의선 중심의 상업 구조는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신촌역과 일산역 사이의 철로는 고양시의 핵심적인 중심 길 중의 하나였다. 아울러 기존의 관서대로에 기반을 두고 난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1번 국도는 구파발에서 벽제를 거쳐 문산읍으로 연결되어 기왕의 고양동을 지역적 중심의 하나로 유지시켰다.

따라서 오늘날 고양시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정발산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 중심지역과 일산동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시 중심지역, 고양동·원당동·행주동 등의 다섯 개 문화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은 이러한 문화권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0세기 고양시 일대의 생업과 관련된 민속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글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시의 전통적인 생업형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어업과 상업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 하에 놓여 있었다. 이미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이 그 이전에는 농업 중심지였으며, 행주산성 아래 행주외동은 이전과 현재에도 고양시 일대의 어업 중심지이다. 아울러 일산역 근처의 일산동 일대는 20세기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산상설시장과 5일장이 열리는 곳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조사연구의 핵심지역으로 이 세 곳을 설정하고,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서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본 조사연구는 2001년 7월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총 여섯 차례의 현지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문은 먼저 신도시 개발 이전에 고양시의 핵심적인 생업형태였던 농업과 관련된 민속현상에 대해서 살핀다. 이 지역의 농업에 대한 상세한 조사연구는 1991년 일산 새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필자가 조사연구한 자료와 함께 한국선사연구소·경기도·단국대학교한국민족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일산 사람들의 삶과 문화-역사 민속 조사보고』(1992년) 중 「농업생산과 교환」을 부분적으로 참고했다. 농업에 이어서 어업을 주요



행주외동 행주나루터와 행주대교

항목으로 다룬다. 어업 및 어업민속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는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행주외동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 이 지역의 어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상업민속에 대해 다룬다. 상업민속은 주로 전근대사회에서의 핵심적인 활동 장소였던 5일장을 중심에 둔다. 특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산 5일장에 대한 묘사(description)를 통해 도시적 삶 속에서 이어지는 전통적인 일산 5일장의 문화적 의미를 살핀다. 특히 1930~1960년대가 서술의 중심적인 시대가 된다. 특별하게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이 시대로 보면 된다.

2. 본 론

1) 농업민속

일산지역은 일찍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신도시 개발 당시에 4.500여년전의 범씨가 발굴되었다. 오늘날에도 농업이 중요한 산업의 한가지로 자리잡고 있다.

농업민속은 농업활동에서 나타나는 비제도적인 문화양상을 가리킨다. 특히 농업민속은 자연환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계절성(季節性)과 주기성(週期性)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농민들이 장기간의 관찰과 실천적인 생산활동에서 얻은 경험적인 지식은 농업민속의 핵심적인 근간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농업의 생산활동은 대체로 절기(節氣)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절기란 태양년(太陽年)을 태양의 황경(黃經)에 따라 24등분하여 계절을 세분한 것이다. 다른 말로는 시령(時令) 혹은 절후(節候)라고도 불렸다. 24절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음력월	절기	양력일자	황경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에 기록된 기후의 변화
1월(孟春月)	立春 雨水	2월 4일경 2월 19일경	315 330	동풍이 불어 언 땅이 녹고, 땅속에서 잠자던 벌레들 움직이기 시작.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며, 초목에서 쑥이 튼다.
2월(仲春月)	驚蟄 春分	3월 6일경 3월 21일경	345 0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하고, 꾀꼬리가 울며, 매가 비둘기가 되고, 제비가 날아온다. 우레가 울고 번개가 친다.
3월(季春月)	清明 穀雨	4월 5일경 4월 20일경	15 30	오동이 꽃 피기 시작하고, 들쥐가 종달새가 되며, 무지개가 나타나고, 마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4월(孟夏月)	立夏 小滿	5월 6일경 5월 21일경	45 60	청개구리가 울고 지렁이가 나오며, 王瓜가 나오고 쓴바귀가 뻗어 오르며, 냉이가 죽고 보리가 오른다.
5월(仲夏月)	芒種 夏至	6월 6일경 6월 21일경	75 90	塘螺(버마재비-매미)가 생기고, 왜가리가 울기 시작하며, 매미가 울기 시작하고, 사슴의 뿔이 떨어진다.
6월(季夏月)	小暑 大暑	7월 7일경 7월 23일경	105 120	더운 바람이 불고, 귀뚜라미가 벽에 다니며, 매가 사나워지고, 쑥은 풀이 반딧불로 변하고, 흙이 습하고 더워지며, 비가 내림
7월(孟秋月)	立秋 處暑	8월 8일경 8월 23일경	135 150	서늘한 바람이 불고, 이슬이 내리며, 스르라미가 울고, 매가 새를 많이 잡는다. 천지가 쓸쓸하여지기 시작하고 벼가 익음.
8월(仲秋月)	白露 秋分	9월 8일경 9월 23일경	165 180	기러기가 날아오고, 제비가 돌아가며, 뜻새들이 먹이를 저장하고, 우뢰가 소리를 거둔다. 겨울잠 자는 벌레가 흙을 판다.
9월(季秋月)	寒露 霜降	10월 8일경 10월 23일경	195 210	기러기가 날아오고, 참새가 큰물에 들어가서 조개가 되며, 국화가 노랗게 꽂 피고, 초목이 누렇게 낙엽지고, 벌레들이 땅속으로
10월(孟冬月)	立冬 小雪	11월 7일경 11월 22일경	225 240	물과 땅이 얼기 시작하고, 빙이 큰물로 들어가서 조개가 되고, 무지개가 견혀서 나타나지 않는다. 겨울이 된다.
11월(仲冬月)	小雪 冬至	12월 7일경 12월 22일경	255 270	할단새가 울지 않고, 범이 교미를 시작하여 荔枝가 돋아나고, 고라니의 뿔이 떨어지고, 샘물이 안다.
12월(季冬月)	小寒 大寒	1월 6일경 1월 21일경	285 300	기러기가 북으로 돌아가고, 까치가 것을 치기 시작하며, 낚이 알을 품는다. 물과 뜲이 두껍고 단단하게 안다.

필자의 면접조사에 의하면 고양시 일대의 농사력은 지역 및 시대별로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24절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체적인 농사력은 큰 차이가 없다. 가령 화학비료와 제초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1950년대 이전의 논농사는 볍씨 치기→모내기→김매기→추수의 네 단계가 핵심적인 농업활동의 단계였다. 각각의 농사 단계는 24절기와 일정하게 관련이 있었다. 우선 못자리 설치와 볍씨 치기는 곡우(穀雨; 양력 4월 20일경)가 기준이 된다. 모내기는 망종(芒種; 양력 6월 6일경) 전에 끝냈다. 김매기는 하지(夏至; 6월 21일경) 전후에 애벌김매기, 애벌김매기 15일 후인 소서(小暑; 양력 7월 7일경) 전후에 두벌김매기를 했다. 추수는 백로(白露; 양력 9월 8일경) 때 벼가 피면, 그로부터 40일 내에 있는 추분(秋分; 양력 9월 23일경)과 한로(寒露; 10월 8일경)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 상세한 과정을 다음에서 살펴본다. 본 자료는 필자가 김현규씨(송포호미걸이 전수자, 1942년생)와 면접 조사한 것과 류기선의 「농업생산과 교화」(『일산사람들의 삶과 문화-역사 민속 조사보고』, 1992)를 주로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1) 볍씨 치기

복씨 치기 단계에서는 선행되는 원래 작업이 있었다. 먼저 천연비료인 퇴비를 마련하고, 그것을 논갈이를 하면서 뿌리는 작업이다. 동시에 못자리를 마련하여 볍씨 치기를 준비한다. 조선후기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된 못자리 설치와 모내기 농사법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한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모내기가 일찍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지인들의 기억에 의하면 일제시대에는 못자리를 내서 모내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한다.

비록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화학비료가 쓰이기는 했지만 값이 비쌌고 배급제였기 때문에 논갈이에 쓸 퇴비는 천연비료가 1960년대까지 많이 쓰였다. 일반적으로는 풀을 잘라서 논에 덮어두거나, 재를 변소에 뿐려둔 후 인분과 섞어서 '퇴비가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는 집에서 소를 키우면서 똥과 오줌으로 질이 좋고 많은 양의 퇴비를 마련하는 것이 좋았다. 6.25이전에는 서울이 가까운 도내리, 용두리 등지에서는 서울의 염천, 아현동, 서대문까지 가서 인분을 모아 가지고 왔다.

먼저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마련해둔 벗짚을 외양간 바닥에 석 단 정도 깔아둔다. 그러면 소가 그것을 밟으면서 똥과 오줌을 누고 밟고 한다. 이렇게 3~7일 정도 지나면 그것을 모아서 쌓아둔다. 이것을 썩혀서 천연비료를 만든다. 암소의 경우에는 오줌 양이 많아 이런 퇴비를 많이 생산했다. 짚을 썩혀서 암소의 오줌으로 만든 퇴비를 다른 말로 '웩깃'이라 불렸다. 그러나 돼지를 키워서 퇴비를 마련하면 그 양이 소에 비해 많지 않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똥을 모아두었다가 논을 갈기 전에 뿐렸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화학비료가 값싸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천연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논갈이를 하기 전에 한 마지기(200평)에 한 포대 꼴로 복합비료를 뿐렸다.

논갈이와 못자리 마련은 보통 곡우 보름전인 청명(清明; 양력 4월 5일경) 때 동시에 이루어졌다. 논갈이에는 1960년대 이전까지 보통 소와 쟁기를 이용했다. 논갈이는 보통 '애갈이', '두번갈이', 그리고 '세벌갈이'로 나누어졌다. 애갈이와 두번갈이는 보통 10~15일 간격으로 이루어졌는데, 천연퇴비를 논에 뿐려놓고 쟁기로 논을 갈았다. 보통 물을 대기 좋은 '무논'에서는 5cm, 물이 부족한 '건답' 일 경우에는 10cm 깊이로 애갈이를 해 놓은 다음 10~15일이 지난 후, 그것을 다시 뒤집는 두번갈이를 행했다. 못자리를 써레로 가는 과정을 세벌갈이라 불렀다.

못자리에 써레질을 한 후 15일쯤 지나 못자리를 다루고 며칠 지난 후 곡우 때 볍씨를 친다. 먼저 작년에 남겨둔 볍씨를 키에 넣고 날리면 가벼운 것은 날아간다. 키에 남은 것을 물에 담가둔다. 약 40시간 정도 지난 후 볍씨를 건져서 말린 후 가마통에 넣어 방에 들여놓는다. 이렇게 볍씨를 재생시킨 다음 못자리에 볍씨를 뿌린다. 이것을 '복씨 친다'고 한다. 그런데 볍씨가 부실하면 물에 떠오르는 것이 많다. 알이 크고 잘 불려진 것은 물에 바로 가라앉는다. 싹이 나오지 않고 벌어진 상태가 모심기에 가장 좋다. 따라서 전 헤에 벼를 베기 전에 미리 알이 크고 무거운 볍씨를 골라서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어떤 품종의 볍씨를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제시대에는 풍옥·다마금·곡량도·은방조·조실력·적실력·팔달·옥자도 같은 품종의 벼가 있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아끼바리와 통일벼가 주류를 이루었다.

옛날에는 가운데 자리에서 타원형으로 돌면서 써레질을 하여 못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후 나무 판자로 모판을 만들었다. 모판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오줌·재·콩깨묵 등을 뿌리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모판에 물을 넣은 다음 써레질을 한 뒤에 물을 말린다. 마른 모판 바닥에 씨를 뿌린 뒤에 비닐로 덮어 보온을 해준다. 보통 볍씨를 못자리에 뿌리는 일은 곡우 때 한다. 2~3일 정도 새벽에만 뿐린다.

1970년대 비닐생산 시대가 되면서 못자리의 시기는 적어도 보름 이상 빨라졌고, 1990년대에는 직파로 못자리 단계를 뛰어넘는 농가도 생겼다. 1980년대부터는 이앙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못자리에는 모판에 씨를 뿌린 것을 가지런히 놓고 비닐터널을 만들어 키웠다.

(2) 모내기

못자리에 벼씨를 치고 나서 40일정도 지나면 쪽이 10cm 이상 자란다. 너무 많이 자라면 모내기 이후 뿌리를 잘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사람은 35일이 지나면 모심기를 시작하기도 했다. 따라서 모심기는 망종(芒種; 양력 6월 6일 경) 전에 끝냈다. 일반적으로 한강 이북에서는 망종 때 모심기를 시작하여 하지 전에 끝이 났는데, 고양시 일대는 그 시기가 인근 지역에 비해 빨랐다.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했다. 1930년대 이전까지는 추수가 끝난 이후 개울을 막아 ‘동뚝’ 이란 것을 설치해야만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 동뚝은 개울이 지나가는 곳을 이용해서 동네마다 한 두 개씩을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동네와 동네 사이에는 개울이 지나가고 이것이 동네를 구분 짓는 기준선이 되었기 때문에 동뚝을 만드는 데도 동네끼리 경쟁이 붙었다. 동뚝을 설치하기 좋은 곳을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모내기를 다 한 후에 동뚝을 터놓으면 동네를 이어주는 길이 사라져서 불편했기 때문에 큰돌을 미리 동뚝 안에 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신도시 개발 이전의 송포면 김동·김서·양촌 마을의 경우, 모내기가 끝날 무렵 동뚝을 완전하게 터놓으면 통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리 큰돌을 놓아서 다리를 만들어 두기도 했다. 이 다리를 ‘베럿개 동다리’라 불렀다. 193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동뚝이 각 동네마다 있었고, 이 자리에 동네를 이어주는 다리도 설치되었다. 큰 동뚝의 경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만들어도 4~5일이 걸렸다. 봄이 되면 동뚝을 터서 모내기를 했다. 그런데 동뚝을 다 터놓으면, 건답의 경우 모내기 이후 물이 부족하여 애를 먹었다.

1930년대 이전에는 ‘막모’ 혹은 ‘마름모’라 하여 마름모꼴로 모심기를 했다. 즉 마름모꼴로 한 줄을 한 다음 그 다음 줄에 모를 꽂을 때는 앞줄의 모 포기 사이에 꽂았다. 일제시대 이후 양끝에서 줄을 들고 이에 맞추어 모를 심는 ‘줄모’가 생겼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를 심는 간격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만큼 일정 면적당 소출이 많아졌다.

모내기 할 때는 보통 네 끼를 먹었다. 왜냐하면 모내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즉 모판에서 벼씨에 쪽이 돋아나서 크면 모심기가 좋지 않았다. 따라서 모내기는 몇 집이 협동하여 품앗이로 하거나, 규모가 크면 두레째를 짜서 했다. 일손이 없는 집에서는 사람을 사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맏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믿음이 강했다. 집안에 아들이 많으면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1950년대 이전까지 고양시 일대에서는 여자들이 논일하는 것을 금기시 했다. 밭 매는 일이나 여자들이 했다. 그런데 밭 매는 것은 별로 일거리가 없었다. 자기 먹을 것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논일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이다. 품앗이로 모내기를 할 경우 보통 아침은 일하는 집에서 먹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그집 모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에 아침을 먹고 나면 보통 오전 6시부터 모내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 10시 반쯤 점심을 먹었다. 다시 오후 4시쯤에 새참을 먹고, 다시 해가 지면 각자 자신의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다.

줄모는 줄에 박힌 간격표시 대로 보통 30~40명이 한 조를 이루어 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줄을 잡았다. 이때는 보통 ‘열소리’라는 것을 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것을 열소리라고 한다. “하나로구나”로 시작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세는 방식의 소리로 이것을 모심는 사람들이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고 받으면서 모심는 손을 맞추었다. 한 사람이 한 마지막 모심는 일을 ‘대지기’라고 하는데, 다섯 명이면 다섯 마지막기를 냈다. 늦게 모심기하는 것을 두고 ‘마냥모’라 불렸고, 먼저 내는 걸 ‘조양모’라 불렀다. 조양모 낼 때는 일찍 모를 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마지막 풀로 하지만, ‘마냥모’를 낼 때는 날씨가 더워지고 모도 자라서 길어 두 마지막기 내는데 세 사람의 인력이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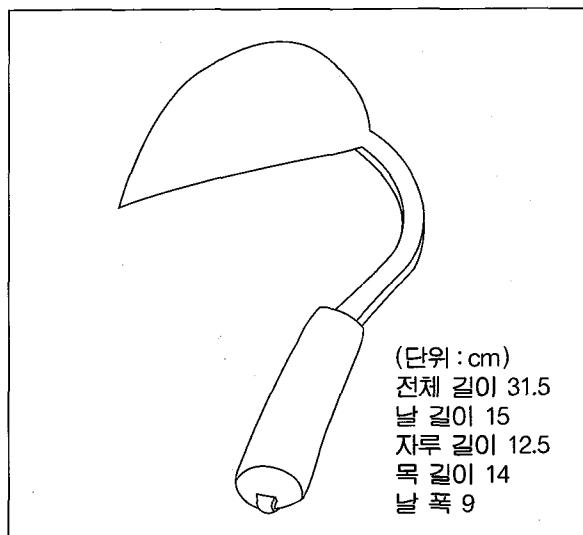
(3) 김매기

모내기를 하고 나서 17~18일이 지나면 김매기를 했다. 김매기의 대상은 벼 사이에 자라는 풀로 이것이 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뽑아 주어야 하고, 이 일을 김매기라 부른다. 이 지역에서 김매기의 대상이 되는 풀은

1960년대 이전까지 배랭이·울망대·보풀·줄풀·피·가래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김매기 대신에 제초제를 뿐만 아니라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제초제가 성행하면서 김매기는 점차 사라졌다.

보통 김매기는 하지(夏至: 6월 21일 경) 전후에 애벌김매기, 애벌김매기 15일 후인 소서(小暑: 양력 7월 7일 경) 전후에 두 벌김매기를 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때 그때 풀을 뽑는 세 번째 김매기를 했는데 이것을 '삼동'이라 불렀다. 애벌김매기는 풀을 뽑아내는 데도 목적이 있었지만, 벼 뿌리를 끊어서 벼 포기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하여 장차 이삭이 굵게 열리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삼동은 논의 사정에 따라 피가 많이 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행해졌다. 삼동이란 훔친다고 했는데, 맨손으로 풀을 뽑고 훔어서 논바닥에 빨로 꾸哝는다. 김매기에는 주로 호미를 사용했다. 이것을 '못놀호미'라고 불렀는데, 다른 호미에 비해 입이 넓다. 못놀호미는 입이 뾰족하여 흙을 쪼은 뒤 굽으면서 당기면 흙이 뒤집어진다.



<못놀호미>

출처 : 류기선의 「농업생산과 교환」,

『일산사람들의 삶과 문화』

- 역사 민속 조사보고, 1992, 107쪽.

아울러 김매기는 그 일이 고되고 작업량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두레패를 조직하여 애벌김매기와 두벌김매기를 했다. 고양시 일대에서는 과거 두레패를 농악대·농기패·두레회 따위로 불렀다. 두레패는 반드시 남자들로 구성되는 데, 보통 20~25호 정도가 적당한 구성원의 범위였다. 이것은 김매기라는 공동노동을 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인원으로 이 숫자가 한 동네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기도 했다. 만약 동네의 구성원이 이 숫자에 미치지 못하면 두 동네가 합쳐서 하나의 두레패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이전 조사보고¹⁾에 의하면, 제방을 쌓기 이전에는 대화동 지역에는 김동·김서·양촌 등 세 동네에 각각 하나씩의 두레패가 있었다. 그런데 제방을 쌓은 뒤에 동네가 다시 형성되어 내촌·강서·장촌·성저·백암 등지에도 두레패가 생겼다. 기왕의 세 동네가 금릉 김씨의 집성촌으로 종가가 있었던 김동이 가장 많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김동 두레패의 농기가 가장 높은 급수인 '영좌기'가 되었다.

두레패는 나이가 가장 많고 영좌 자리를 역임한 사람이 '좌상'이 되었으며, 좌상 밑에는 대표격인 50~60대 나이의 '영좌', 그리고 그 밑에는 총무에 해당되는 '소임'이 있었다. 소임 밑에는 그를 보좌하는 '조사'를 두었는데, 보통 10대 후반의 남자가 맡았다. 보통 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영좌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몇 년씩을 도맡아 했다.

한 해의 두레패 조직은 보통 음력 4월 15~20일 사이에 논농사를 가장 많이 하는 집이나 넓은 마당을 가진 집에서 좌상 혹은 영좌가 주관하여 소집, 회의를 열었다. 이 때 논의되는 안건은 두레 조직 및 임원 선출, 그리고 김매기 순서를 결정하는 일 등이었다. 제일 먼저 매는 날을 잡은 후 집집마다 날짜를 잡아 나간다.

사실 김매기는 재미도 있지만, 힘이 들기도 했다. 김매는 시기는 5월 단오를 전후해서 끝이 났다. 하지 지나고 한 열흘 즈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28일, 짧게는 24일 정도를 했다. 김매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몸집이 좋은 사람도 두레 김매기가 끝나면 전부 말랐다.

1) 류기선 : 「농업생산과 교환」, 『일산사람들의 삶과 문화 - 역사 민속 조사보고』, 1992, 130쪽.

두레 김매는 집의 순서는 영좌가 정하고 아침에 그 집에서 볶을 쳤다. 이것을 ‘사람몰이’라고 했다. 김매기 하는 집에서 볶을 치면, 아침밥을 그 집에서 먹고 농기구 들고 나가서 김을 매고, 그리고 있다가 10시쯤 되어서 새참이 나왔다. 새참 먹고 눈을 매다가 점심 때 들어왔다. 점심은 일 한 집에서 먹었다. 처음 애벌김매기를 할 때는 별로 덥지 않지만, 두벌 김매기를 할 때는 막 더워지기 시작했다. 두벌김매기를 하고 나면 복중에 들어가서 무척 더웠졌다. 두레로 김맬 때는 새벽 다섯 시부터 일을 나갔다. 그래서 하루종일 ‘논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되었다. 심지어 새벽 두 시에 두레복을 쳐서 김매기를 시작한 적도 있었다. 두레복은 두레의 영좌 지시를 받은 조사가 김 맬 집에 옮겨 놓으면 그 집에서 새벽에 볶을 쳤다. 김 맬 때는 점심참을 무척 잘 쟁겼다. 점심밥은 김 매는 집에 와서 먹는 데 서로 반찬을 잘 해서 두레페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집집마다 반찬 가지 수를 늘리는 데 경쟁이 붙었다. 왜냐하면 김매기가 끝나면 날짜 수에 맞추어 두레결산을 하는데, 가능한 빨리 일을 마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육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은 상당히 드물었다.

애벌과 두벌 김매기가 다 끝나고 한 달쯤 지나면 두레의 뒷마무리를 하는 ‘두레심’을 위해 다시 회의를 했다. 이를 두고 ‘두레심본다’고 불렀다. 보통 농사를 가장 많이 지은 집에서 회의 장소를 제공했다. 안건은 일값 계산과 마지막 뒷풀이인 ‘호미씻이’ 혹은 ‘호미걸이’를 할 것인가였다. 호미씻이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보통 두레심 회의 날로부터 보름 뒤에 열었다.

두레가 품앗이와 다른 것은 일값을 계산하는 데 있다. 품앗이의 경우 서로 일을 해주어 그것으로 상호간의 이익을 해결 하지만, 두레는 반드시 일의 정도에 따라 일값을 차른다. 보통 일값의 계산은 참여한 사람의 작업일수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령 전체 두레페가 함께 일을 한 일수에 참여한 호수를 나누면 평균 일수가 나온다. 각 집의 김매기 일수가 이 평균 일수를 넘을 경우, 그에 해당되는 돈을 내어 놓아야 하고, 평균 일수와 동일할 경우 돈을 내놓지 않으며, 평균 일수보다 적을 경우 돈을 도로 받아간다. 따라서 김매기 날에 해당되는 집에서는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새벽부터 일을 독려하여 이 일수를 줄이려 노력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일부지역에서 제초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김매기에 들이는 노동력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자연히 서서히 두레페 조직이 동네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 제초제가 보편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행해졌던 김매기 두레 조직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모내기와 김매기가 끝나고 나면 여름철 물 관리가 중요한 일이었다. 비록 1925년 이후 제방이 쌓여서 그 이전에 비해 한강 물이 범람하는 일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에 여름철 개울물이 한강의 높은 수위로 인해 원활하게 빠지지 않아 고생을 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드는 제방 근처보다는 건답이 많은 곳이 단위 면적당 소출이 많았다. 1956년에 한강이 다시 범람한 후 수로공사를 시작하여 1958년에 완공했다. 원래 수리조합에서 행주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범람하는 한강 물을 펴냈지만, 그 용량이 적어 그 일대만 효과가 있었다. 1956년에 용량이 큰 것을 지금의 일산 신도시 일대에 설치하여 한강 물이 범람하기 전에 펴내게 되었다. 이때 수리조합이 생겨서 수로를 놓고 배수시설을 갖추었다. 이전에는 한 마지기(200평)에 쌀 한 가마니의 소출도 올리지 못했던 것이, 그 후에는 한 마지기에 벼 7~8 가마니가 생산되었다.

병충해는 1950년대 중반 농약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이전에는 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골칫거리 중의 하나였다. 주로 메뚜기는 채를 사용해서 잡았고, 나방이나 벼멸구 따위는 논 근처에 불을 지펴 잡았다. 그러나 농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병충해의 종류가 더욱 많아져서 농약 사용량이 늘어났다. 특히 화학비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비해 병충해가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다.

(4) 추수

추수는 백로(白露:양력 9월 8일경) 때 벼가 다 패면, 그로부터 40일 내에 있는 추분(秋分:양력 9월 23일경)과 한로(寒露:10월 8일경) 사이에 이루어졌다. 벼 베기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 주로 사용했던 농기구는 낫이었다. 일제시대 이전까지는 벼 베기에서 주로 ‘조선낫’을 사용했다. 그러나 조선낫은 날의 두께가 등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져 무게가 많이 나갔고 쉽게 무뎌졌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왜낫(일본낫)이 일제시대 이후 많이 쓰였다.

벼 베기는 품앗이로 했다. 하루가 바쁘게 벼를 베야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도 했다. 그 때 역시 밥을 냄 끼 먹었다. 특히 추수 때는 해도 짧지만 비가 오든지 하면 한해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기 때문에 ‘벼 베기를 하루 물리면 열흘 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급하게 집중적으로 벼 베기를 해야 했다. 그래서 추수 때는 김매기 때처럼 두레페를 조직하여 풍물을

치고 할 틈이 없었다.

고양시 일대에서는 논 한 마지기에 200평, 4방 여섯 자를 한 평으로 쳤다. 농사가 아주 많은 집은 50마지기, 아주 적은 집은 서너 마지기 짓는 집도 있었다. 보통 17~18 마지기였다. 한국전쟁 이후 토지개혁을 하면서 소작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 전에는 소작이 많았다. 일제시대 이 지역에서 큰 지주는 황해도 연백 사람인 최상옥과 서울 사람인 조진태가 유명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소유의 땅도 많았다. 금릉 김씨 문중의 종가에서도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씨 문중은 9대 부자라고 했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황해도에도 땅이 있었다. 추수를 하면 수확량이 약 4천 석 이상이 되었다. 옛날 한 마지기에 한 석 반 나왔으니, 대략 2,600 마지기가 넘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략 53만평의 논을 소유한 셈이다. 소작을 짓는 집에서 추수하기 전에 지주가 보낸 타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잘 접대했다.

벼 타작은 보통 미당에서 이루어졌다. 1970년대 초반 기계탈곡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절구통·매통·채가지·그네·도리깨·발틀(발로 밟는 탈곡기) 등을 이용해서 타작을 했다. 탈곡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따라서 탈곡기가 생기기 전에는 벼 베기를 한 다음 다시 타작을 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탈곡기가 등장한 이후 벼 베기와 동시에 타작이 이루어졌다. 탈곡한 곡식은 명석·도래방석·발·거적 등에 널어 양지에서 말렸다.

일제시대부터 동력을 이용한 방앗간인 정미소가 생겼다. 집에서 정미를 할 경우 절구에 벼를 찧거나 연자방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정미소에서 하는 작업이 훨씬 수월했다. 정미소에서 정미를 하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정미한 벼에서 품삯(용공)을 냈다. 가령 정미한 쌀이 25말이면 한 말을 품삯으로 쳤다. 처음에는 세 가마에 한 말로 했다가 한국전쟁 이후 아주 비쌀 때는 두 가마 스무 말에 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 후 각 곳에 방앗간이 생기면서 품삯이 줄어들었다.

물론 정미기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품앗이로 절구에 쌀을 찧거나, 더 이전에는 연자방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5) 기타 농사

한강에 가까운 지역은 한강물이 범람하여 물이 많이 끼였다. 이 곳을 두고 고양사람들은 ‘앞벌’이라 불렀다. 즉 앞벌에는 갯간막이 쪽 끼는데, 지금의 주엽동 바깥쪽이다. 거기는 물이 한번 켰다 하면, 금방 들어왔다. 제방이 설치된 이후에도 한강의 수표가 높으면 물이 빠지지 못하고 고였다. 이로 인해 앞벌은 농토가 아니라, 갯벌이었다. 추수가 끝나면 앞벌에는 ‘달’이 갈대처럼 자랐다. 많이 자라면 두 길 반까지 키가 컸다. 달은 보통 음력 8월 추석 전후에 잘랐다. 달은 작은 낫으로는 못 베고 ‘준골’이라고 하는 서서 작업이 가능한 낫으로 했다. 그 길이가 130cm쯤 되었다. 이것을 들고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베어 나갔다. 앞벌은 별도의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 숫자만큼 베어갔다. 이것을 엇갈리게 둑은 후 소등에 실어 옮겼다. 이것을 한 사람이 하루에 대략 200 둑을 정도를 했다.

달은 일제시대에 주로 뱃감의 주원료였다. 또 이것을 이용해서 집을 지을 때 벽체 속에 넣으면 담이 튼튼했다. 혹 달로 인삼밭에서 쓰이는 ‘삼포발’을 엮어 배로 개성에 내다 팔기도 했다. 해방 이후 달을 이용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었다. 사실 고양시 지역에서 달이 생산되었다는 기록은 조선시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년)에도 등장한다.

즉 “달(葭蘆)이 나면 선공감에서 매년 거둬들여 나라의 쓸모 있는 일에 썼다”(生葭蘆繕工監歲取以充國用)고 적혔다. 『고양군지(高陽郡誌)』(1755년)에는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즉 “증면의 압도에는 주위 1만 257척이 모두 선공감의 초장이다”(中面鴨島周回一萬二百五十七尺卽繕工監草場)고 했다. 오늘날의 신평(新坪)에 드는 압도에는 선공감에 소속된 초장이 있었다는 말이다. 이 초장에서 나온 달은 발과 자리를 만드는 데 쓰였고, 이것을 선공감에서 관리했다는 사실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간과 한강 제방의 축조, 그리고 1960년 이후 수로정비와 경지정리 등으로 이 지역에서 달이 자라는 앞벌이 사라졌다.

밭농사로는 호밀, 수수, 참깨, 들깨 정도를 심었다. 배추는 한국전쟁 이후에 심기 시작했다. 특히 개성과 장단사람들이 이곳에 피난을 와서 배추를 심으면서 본격적으로 배추농사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특별히 땅도 없고, 불어먹을 생업거리도 없어 배추를 빙 땅에 심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 가령 송포의 김현규 씨 집에서 머슴을 한 장단사람 윤씨는 배추 같은 채소를 텁발에 심어서 동네에서 팔다가 제법 잘 팔리니 많이 심어 서울에 내가서 팔기도 했다.

195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상인들이 배추를 요구해서 배추를 대량으로 재배했다. 이후 지금까지 서울의 근교 농업이 활발하여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는 집이 많다.

보통 고양 토박이들은 자신들 먹을 것만 텁발에 채소를 심었다. 참깨를 심었지만 깻잎은 잘 먹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남쪽에 피난 가서 깻잎 먹는 것을 보고 깻잎도 먹는지 알았다. 그 후 이 지역에서도 깻잎을 버리지 않고 먹기 시작했다.

보리는 밭에다 심었고 논에서는 안 심었다. 봄보리는 봄에 심고, 가을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다음 해 초여름에 맺다. 보리농사는 비록 소출은 적지만 김도 안 매고 밟아주기만 하면 되어 수월했다. 보리 씨앗은 말린 것을 이랑이 아닌 고랑에 뿐였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뿌리를 잘 내리라고 보리밭을 밟아주었다. 보리 짹은 망종 때 올라온다. 그래서 망종하면 보리 숨 끊어지는 날이라고 불렸다.

봄에는 수수나 호밀을 심었다. 호밀은 소출이 적었지만 호밀 짚이 커서 비 가리개를 엮을 때 좋기 때문에 재배했다. 그러나 호밀은 소먹이를 하든지 했지 잘 먹지 않았다. 또 누룩 만드는 데도 썼다. 수수와 들깨는 콩밭 이랑에 부룩을 쳤다. 수수는 호밀 심은 한 쪽에, 콩은 그 옆에, 밭 가운데는 들깨를 심었다. 콩은 여름에 심었다가 늦가을에 거두었다. 그러나 일산지역에는 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텃밭이나 구릉 밑에 좁은 밭을 일구어 채소나 잡곡을 재배했다. 밭일은 여자들이 주로 도맡았다.

(6) 농사 예측 습속

예나 지금이나 농사는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매년 자연환경을 예측하거나 경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일년의 기후를 가늠하는 습속이 농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일 지, 흥년일지를 예측하는 농점(農占)은 그 해의 처음인 정월 대보름 이후에 자연현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구화의 경향으로 이러한 습속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기왕의 보고서²⁾에서 알려진 농사 예측 습속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정월 보름에 달무리가 안쪽으로 두꺼우면 풍년, 바깥쪽으로 두꺼우면 흥년이다.”

“음력 2월 6일 좀생이 별자리를 보고 풍흉을 점친다. 초저녁에 하늘을 보면 좀생이가 있는데, 달 뒤에 있으면 그 해에 풍년이 들고, 달 앞에 있으면 흥년이 듈다. 좀생이는 아이들을 의미하고 달은 밥꼬리를 가리킨다. 달이 앞에 서 있으면 밥이 남아돈다는 뜻이고, 달이 뒤에 서 있으면 밥이 모자란다는 것을 뜻한다.”

(7) 소 결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 고양시의 핵심적인 경제활동은 농업이었다. 주로 오늘날의 일산 신도시 지역에 집중되었던 논은 벼농사를 짓는 데 좋은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한강에 인접한 연유로 해서 홍수와 한강물의 범람이 자주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동뚝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일제시대 이전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25년 대홍수 이후 한강에 제방이 놓이면서 갯벌이었던 앞벌의 일부도 논농사 지역으로 편입되어 농사의 양이 늘어났다. 특히 줄 모내기의 실시, 화학비료의 공급, 그리고 동력정미소의 설립 등으로 인해 논농사는 이전에 비해 더욱 안정되었다. 결국 단위 면적당 소출량을 증가시켜 이 지역이 논농사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

제초제가 보편화되기 이전까지 이 지역에서는 김매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으로 두레페가 성황을 이루었다. 동네 단위로 조직되었던 두레페는 이미 일제시대부터 두레시합이란 경영대회가 생겼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것 이 오늘날 송포 호미씻이 놀이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제초제가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공동 김매기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결국 두레조직도 농사에서 의미를 잃어갔다. 즉 농사의 기계화, 화학화는 공동체의 협동관행을 사라지게 했고, 오늘날 농업은 개인적인 경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960년대 고양지역의 농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서울의 근교농업이 성행했다는 점과 전라도 노동력의 유입이다. 특히 외지인들이 중심이 되어 비닐하우스에 의한 채소와 과일 재배는 서울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큰 사업이 되었다. 이전까지 주로 자신들이 먹을 채소만 재배하던 고양 농민들이 농업경영을 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또 다른 변화는 논농사 지역이 늘어나고, 채소재배가 활발해지면서 흥년에 시달리던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대거 고양지역으로 이주하면서

2) 류기선 : 「농업생산과 교환」, 『일산사람들의 삶과 문화 - 역사 민속 조사보고』, 1992, 114쪽.

생긴 변화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고양지역에 토박이와 함께 외지인이 혼합되는 문화변동을 가져왔다. 비록 한국전쟁 이후 경기북부지역 사람들이 고양시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한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그들은 비슷한 문화권에서 온 경우였다. 그러나 이 때 전라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업민속에서 몇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령 지게보다는 소만 이용하여 농산물을 이동시켰던 고양사람들에게 지게도 이용하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또 논농사에는 남자들만 참여하도록 했던 습속을 여성도 참여하도록 변화를 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일산 신도시의 개발은 그 동안 축적되었던 농업기술이 사라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었다. 비록 지금도 소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날 고양시는 주거 중심의 상업적인 도시로 탈바꿈을 했다. 이것은 외형적인 삶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고양시의 농업민속은 살아 움직이는 사실이기보다는 과거의 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표는 필자의 조사와 기존 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고양시 일대의 논농사 농사력이다.

음력월	절기	양력일자	1930년대 이후	1970년대 이후
1월(孟春月)	立春 雨水	2월 4일경 2월 19일경		비닐하우스에 못물 붓기
2월(仲春月)	驚蟄 春分	3월 6일경 3월 21일경	논에 퇴비주기 볍씨 물에 담그기	볍씨 물에 담그기
3월(季春月)	清明 穀雨	4월 5일경 4월 20일경	애갈이, 못자리 마련 두벌갈이, 벽씨치기	못자리 마련
4월(孟夏月)	立夏 小滿	5월 6일경 5월 21일경	두레조직 모내기	모내기
5월(仲夏月)	芒種 夏至	6월 6일경 6월 21일경	모내기 애벌김매기	제초제 주기(7~15일 간격 7회) 병충해 구제
6월(季夏月)	小暑 大暑	7월 7일경 7월 23일경	두벌김매기 삼동	
7월(孟秋月)	立秋 處暑	8월 8일경 8월 23일경	두레심(호미씻이)	
8월(仲秋月)	白露 秋分	9월 8일경 9월 23일경	벼 베기	벼 베기
9월(季秋月)	寒露 霜降	10월 8일경 10월 23일경	벼 베기 벼 말리기	벼 베기
10월(孟冬月)	立冬 小雪	11월 7일경 11월 22일경	탈곡 퇴비마련, 동뚝 마련	
11월(仲冬月)	小雪 冬至	12월 7일경 12월 22일경		
12월(季冬月)	小寒 大寒	1월 6일경 1월 21일경		

2) 어업민속

어업민속은 어업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속행위를 가리킨다. 주로 강·호수·바다와 연접한 지역에서 발달한 어업민속은 생태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따라서 어업민속은 계절성(季節性)과 주기성(週期性)이 그 문화적 특징이다. 고양시는 서남부 일대가 한강과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어업과 그와 관련된 민속이 형성됐다. 조선후기에 나온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고양군(高陽郡)」편의 토산(土產)조에는 위어(葦魚;웅어)·해(蟹;게)·은구어(銀

□魚:은어)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고양시에 연접한 한강 하류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로 변화하여 어업행위는 그 이전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을 중심으로 어업활동이 간간이 행해지고 있다. 원래 행주외동은 맨둘, 잣골, 넘말, 강변말의 네 동네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 강변말이 어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어촌이다. 그러나 바다에 접한 어촌과 달리 이곳은 반농반어의 형태로 생업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강변말의 경우 성씨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원래 어촌은 조선시대이래 하층민의 집거지로 이해되어 농촌과 달리 집성촌 형태를 띠지 않았다.

행주외동의 노인들 중언에 의하면 일제시대까지 이산포와 함께 행주나루는 한강을 드나드는 배가 정박하여 성시를 이루었던 곳이다. 이산포의 경우 큰 선박이 곧장 정박하기가 어려워 주로 나룻배가 정박하는 곳이었지만, 행주나루의 경우 그 지형 자체가 선착장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선박들도 정박을 했다. 그래서 서울 마포를 드나드는 배들이 행주나루를 중간 기착지로 하여 드나들었다. 특히 임진강을 따라 내려온 장단의 나무배들이 행주나루에 들어왔고, 충청도 서산의 선박들이 고기를 잡아 이 곳에 정박을 했다. 그래서 일제시대까지 행주나루에는 중국식당까지 있었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일제시대 어업행위는 주로 황포돛단배에 의지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당시 배는 주로 서울 마포의 밤섬에서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배의 크기는 배에 타는 사람들의 숫자로 가늠했다. 보통 2인, 3인, 4인 정도의 돛단배가 있었다. 2인용 배는 길이가 대강 5m 쯤(13척) 되며, 3인용 배는 길이가 대강 7m쯤(19척), 그리고 4인용 배는 길이가 대강 9m쯤(25척) 되었다. 일제시대 배의 값은 2인용이 대략 쌀 15~20 가마니 값(현재 등가로 500~600만원)과 맞먹었다.

다음에서는 행주외동에 근접한 한강에서 일제시대에 주로 잡았던 물고기를 중심으로 어업력을 살펴보려 한다. 오늘날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라진 어종도 있지만, 대체로 전통적인 한강의 어로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고양시 행주외동의 어업민속 정보제공자 조윤봉(1922년생) 어르신



고양시 행주외동의 매운탕 전문식당

본 자료는 주로 행주외동에 거주하면서 과거 어업을 주로 했던 조윤봉씨(1922년생)와의 면접조사에서 얻은 것이다. 면접조사에 의하면 행주외동 어촌에서 주로 잡았던 물고기로는 웅어·황복·승어·메기·참게·자가사리·장어 등이다. 주로 음력 2~3월에는 복어 및 잡어, 음력 3~4월에는 승어, 음력 4~5월 중순에는 웅어, 음력 4월말에서 5월에는 승어 알, 음력 5월말에서 9월초에는 메기와 장어, 음력 9~10월에는 참게, 그리고 음력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자가사리를 잡았다.



고양시 행주외동 강변마을 전경



행주나루터 물에 올려진 현대식 배

(1) 그물 어로

행주외동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대체로 그물어로와 줄낚시어로로 나눌 수 있다. 바닷가의 어촌에서는 그물과 함께 작살·통발·계막·어항 등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지만, 한강에서는 그물과 줄낚시를 주로 이용했다. 그물로 잡는 물고기는 웅어·승어·황복이 대표적이다.

웅어는 청어목 멸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를 가리킨다. 몸은 가늘고 길며 칼 모양으로 생겼다. 몸빛은 은백색이며 몸 길이는 30cm에 이르는 것도 있다. 주로 4~5월에 하천의 하류로 올라와서 산란을 한다. 맑은 물보다는 약간 흐린 물에 산다. 낮에는 기슭에 살고 밤에는 깊은 곳에 산다. 웅어는 한자어로 위어(葦魚)라고 불렸는데 아마도 갈대 사이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갈대 속에 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여겨진다.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는 매년 음력 4월에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고 하면서 한강의 행주(幸州), 임진강의 동파단(東坡灘) 상하류, 그리고 평양의 대동강에 가장 많다고 했다. 『송남잡지(松南雜誌)』에는 “위어는 행주에서만 나기 때문에 사옹원(司饔院)이 관리하면서 직접 진상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웅어를 잡아 진상하던 위어소(葦魚所)가 고양군에 있었다.³⁾ 정보제공자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시대 행주외동 앞 한강에서는 음력으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웅어잡이가 성행했다고 한다. 이 때가 되면 40여 척의 둑단배가 모여서 그물을 치고 웅어잡이에 나섰다.

승어는 승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머리 위가 약간 편평하고 위턱이 아래턱보다 조금 짧다. 비늘은 약간 크고 둥글다. 몸빛은 등쪽은 회청색이고, 배쪽은 은백색이다. 몸길이는 80cm 정도로 음력 4월에 얕은 바다를 다니기 때문에 이 때 주로 잡는다. 조선시대 지리서에는 승어를 수어(秀魚) 혹은 수어(水魚)라 적고 있다. 특히 음력 3~4월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때 잡으면 승어알까지 챙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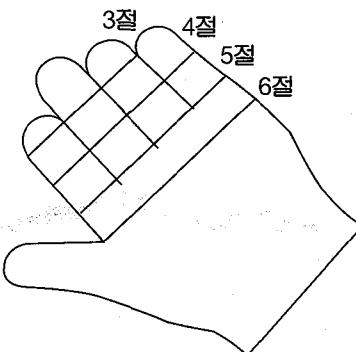
그래서 행주외동 일대에서는 3~4월에 승어잡이를 하고, 4월 중순에서 5월까지 강 갈대 숲 사이에 산란한 알을 잡았다.⁴⁾ 특히 승어보다 승어알은 값이 좋았기 때문에 경기도 평택 근처의 남양만 일대까지 가서 승어알을 잡아오기도 했다.

황복은 복어목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주로 연안과 하천 하류에 서식한다. 음력 2~3월에 산란을 하기 위해 하천으로 올라온다. 이 때가 황복을 잡는 적기로 알려졌다. 행주외동 일대에서도 이때 배가 부른 황복을 잡았다.

3) 이 단락의 내용은 朴九秉 : 「웅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659쪽에서 참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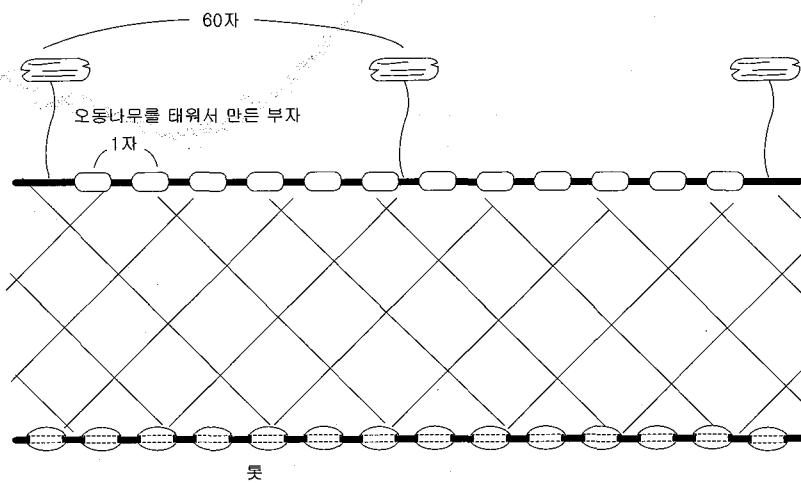
4) 이 단락의 내용은 朴九秉 : 「승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417-418쪽에서 참조한 것임.

옹어·승어·황복를 잡는 방법은 그물을 이용했다. 명주실로 짠 그물은 일반적으로 그 길이를 쟈 때 '절' 이란 단위를 사용한다. 절은 손으로 그 길이를 표시하는 데, 그림과 같다. 1cm면 3절, 1.5cm면 4절, 3cm면 5절, 4.5cm면 6절이 된다. 이러한 표시법은 어부들이 직접 그물을 만들면서 작업할 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옹어는 몸체가 적기 때문에 보통 직경 1.5cm의 4절 크기의 그물로 잡았다. 이에 비해 승어와 황복은 몸이 커서 6절 크기의 그물에도 잡혔다.



<그물에서 쓰이는 길이 단위>

오늘날 그물에는 스티로폼로 만든 부자가 붙어 있어 그물 위를 물에 뜨게 하지만, 일제시대에는 오동나무로 부자를 만들었다. 오동나무를 태워서 무게를 줄인 후 이것을 60자(尺:0.38cm) 간격으로 그물의 상단에 매달았다. 오동나무 부자 사이에는 굴참나무 껍질로 만든 뜯인 '보굿'을 오동나무 부자 사이에 약 30개씩 그물에 매달았다. 굴참나무는 그냥 칼로 깎으면 단단하여 쉽게 깎이지 않기 때문에 솔에 물을 넣고 끓인 후 그 김에 한참을 누룩하게 한 후 칼로 깎았다. 각 보굿은 대략 한척(尺)의 간격을 두었다. 그물의 하단에는 오늘날 납덩이로 발돌(돛)을 만들지만, 일제시대에는 흙으로 만들었다. 점토를 구해 와서 밤알처럼 모양을 낸 후 젓가락으로 양쪽에 흙을 내서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핀 후 이것을 넣는다. 솜씨가 좋은 사람은 마치 송편모양으로 빚는다. 이것을 그물을 짜면서 그림과 같이 하단에 매단다.



<그물에서 쓰이는 길이 단위>

그물은 보통 '채'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길이를 표시했다. 한 채는 20발이며, 한 발은 대략 1.5m쯤 되었다. 따라서 한 채는 약 30m쯤 된다. 강에 나갈 때는 한 채만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양을 잡으려면 대체로 10~12채까지 들고 나가서 각 곳에 그물을 쳤다.

그물은 명주를 사서 직접 짰다. 일제시대에는 서울의 용산 시장에 가서 명주를 사다가 물레질을 하여 실을 만들었다. 이것으로 옹어의 경우 4~5겹의 굵기로 실을 짜고, 승어의 경우 10여 겹으로 실을 짰다. 이것을 실패에 감아서 솔에 넣고 삶는다. 삶은 후 그늘진 곳에서 말리면 탄탄한 줄이 된다. 이것을 가지고 직접 손으로 그물을 짰다. 보통 한겨울에 어부들은 집에서 온 식구가 모여서 그물을 직접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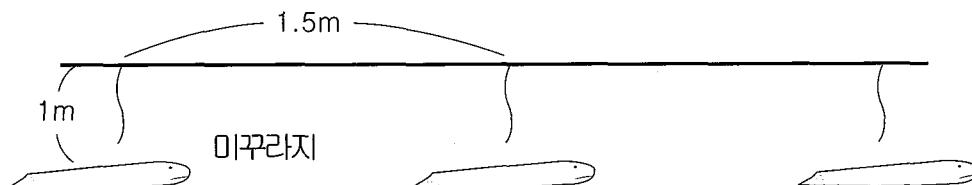
20세기초에 쓰여진『한국수산지』의 방어그물 설명을 보면 “그물실은 모시로 하고 뜰은 가죽나무껍질, 줄은 삼 또는 새끼줄, 발돌은 자연석을 두 발에 한 개씩 단다.”고 한 것과 명주실 그물을 비교하면 이것은 상당히 고급 그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명주실 그물을 사용한 행주외동의 경우 대체로 1930년대 말쯤으로 여겨진다.

웅어와 숭어 이외에도 그물로 잡는 물고기는 잉어·여매기·자가사리 등이 있다. 음력 11월이 되면 한강에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얼음 사이로 그물을 넣어서 잡는데, 돈벌이는 크게 되지 않았다. 봄에 한강 얼음이 깨지면 자가사리를 그물로 잡았다. 그물을 한강에 치는 방식은 대체로 그물 자체를 던져서 그 자리에서 잡아 올리는 방법이 많이 쓰였다. 그러나 통그물을 풀어서 원통모양으로 만들어 고정시켜 잡는 정치망 방식의 그물치기도 있었다. 이 경우 오랫동안 그물을 쳐 놓기 때문에 지나가는 배가 그물을 파손해서 이로 인해 싸움이 나기도 했다. 보통 웅어를 잡을 때 이 방법을 썼는데, 일제시대에는 나무를 실은 배가 자주 지나가서 잘못하여 그물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면 그물을 보상하라고 서로 싸움이 불기도 했다.

(2) 줄 낚시

줄 낚시로 잡는 물고기는 주로 메기·장어·참게 등이다. 일제시대에는 줄 낚시에 쓰는 줄 역시 명주로 만든 실을 사용했다. 짧게 놓는 경우에는 3~4발(4.5~6m)에서 길게 놓는 경우에는 몇십발씩 놓는 사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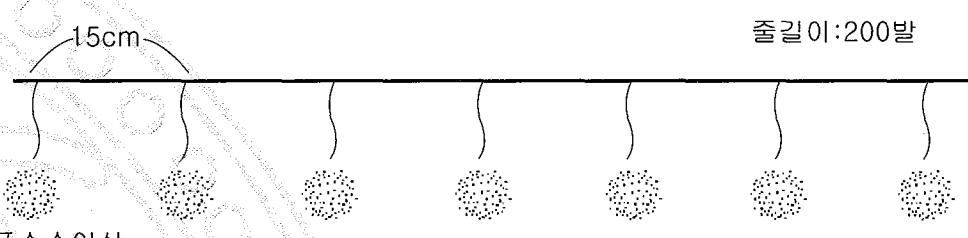
메기는 한 여름에는 줄 낚시로 잡았다. 여름에는 줄에 약 1m 길이로 줄을 이어서 바늘을 단다. 여기에 미리 잡아둔 미꾸라지를 산채로 끼워서 매단다. 그러면 미꾸라지가 살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고 메기가 미꾸라지를 무는 순간 낚시 바늘도 함께 물게 되어 낚시에 잡힌다. 일반적으로 저녁 해질 무렵에 줄낚시를 놓고서 새벽에 나가면 여러 마리의 메기가 줄에 매달려 있다. 여름에 줄 낚시로 잡던 메기는 가을에 접어들면 그물로도 잡았다.



<그물에서 쓰이는 길이 단위>

일제시대 이전에 참게를 잡는 방식은 더욱 특이했다. 수수농사를 지으면 풋수수 이삭을 떠와서 통째로 솔에다 삫는다. 이것을 위의 그림처럼 미꾸라지 대신에 매달면 게가 이것을 먹으려다 낚시바늘에 걸려서 잡힌다. 이렇게 하여 많이 잡으면 30~40마리를 잡는다. 특히 참게 한 접의 가격이 쌀 한 가마에 벼금 갔기 때문에 참게잡이는 성황을 이루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임진강까지 가서 참게를 잡았다.

이러한 방법은 조선시대『전어지(佃漁志)』에도 나온다. 이 책에서는 참게 잡는 방법으로 낚시로 잡는 구해법(鉤蟹法)과 수수이삭으로 잡는 현촉서포해법(懸蜀黍捕蟹法)이 소개되어 있다. 고양시의 행주외동 일대에서 참게를 잡는 방식 역시 ‘현촉서포해법’에 속한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물에서 쓰이는 길이 단위>

그러나 참게잡이는 한강 어디에서나 되는 것이 아니었다. 줄 낚시를 나가기 전날 선주는 배를 몰고 나가서 물이 돌아가면서 물이 맑게 흐르는 곳을 보아 두었다가 당일 배에서 줄 낚시를 풀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들이 버린 낙하산 줄로 참게잡는 데 쓰는 줄을 쓰기도 했다. 그 이후에는 나일론 줄로 대체했다.

(3) 분 배

앞에서도 밝혔듯이 행주외동에서 어로행위에 사용했던 배는 2인·3인·4인용의 목선이었다. 배로 함께 어로를 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도 특별하게 정해져 있었다. 가령 네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가면 4인×2를 하여 어획량을 1/8로 나눈다. 만약 8만원을 벌게 되면, 함께 나간 세 사람에게 1만원씩을 두고 5/8는 선주가 가진다. 2인용 배의 경우 2인×2를 하여 3/4를 선주가 가지고, 나머지 1/4를 함께 나간 사람에게 주었다. 선주는 배를 샀고, 새 배는 4~5년이 지나면 폐선이 되기 때문에 분배에서 월등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촌이지만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평소 논밭 농사를 하면서 어업을 했다. 또한 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주의 경우에도 크게 돈을 번 사람은 드물었다.

보통 선주는 나이가 많은 어부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주의 조수로 따라 다니면서 밀물과 썰물의 물때인 ‘조금’도 배우고, 각 물고기의 서식처를 알고, 어로방법도 배웠다. 또 배를 직접 살 경우에도 서울 마포의 밤섬에서 새 배를 사기도 하지만, 돈이 없을 경우 현 배를 사서 몰고 다니기도 했다.

(4) 소 결

고양시 행주외동 일대는 우리 나라에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착한 지역이다. 그래서 비록 어촌이지만 무속에 근거하는 풍어제나 고사가 성행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들 종교가 유입되기 이전에는 이곳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예측하려는 굳이 어느정도 성행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 이러한 정보를 가진 정보제공자를 찾기 어렵다.

행주외동 일대에서 행해진 어업행위는 주로 바닷물과 한강물이 만나는 지점을 이용해서 두 곳을 다니는 어종들을 주로 잡았다. 따라서 어업의 규모가 해안에 위치한 어촌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다. 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어업을 부업으로 하는 형태가 발달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별도의 수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남양만과 임진강 하류까지 나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강화수협에 소속된 어촌계가 행주외동에 있었다. 대량으로 잡히는 웅어와 승어는 어촌계에 가서 ‘貫(貫:3.75kg)’을 단위로 하여 수매를 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어로 방식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행주외동의 경우 소규모 어로가 행해졌기 때문에 해방 이전까지 전통적인 어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게잡이에서 사용한 수수이삭을 이용한 낚시는 조선시대 문헌에서 드러나는 방식이 그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행주외동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현존하는 오래된 어부들을 집중적으로 면접조사하여 어로방식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오늘날 행주외동 일대는 행주산성을 배후지로 한 테마마을이 형성되어 성업을 이룬다.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허가를 받아 한강 어로를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인천과 서울에서 해물을 받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행주나루가 군사적 이유로 아직 완전히 개방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 마포와 밤섬, 그리고 행주나루를 잇는 조선시대 및 일제시대의 새우젓 뱃길은 새롭게 복원할 필요성이 있는 뱃길이다. 서울 마포 염창에서 소금을 사고, 옹기점에서 새우젓 독을 산 후 새우잡이를 나갔던 새우 배는 행주나루에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고 새우젓을 정리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면에서 행주나루는 다시 복원되어 전래의 어로방식과 함께 새로운 축제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고양시 행주외동 강변마을에 버려진 새우젓독

3) 상업민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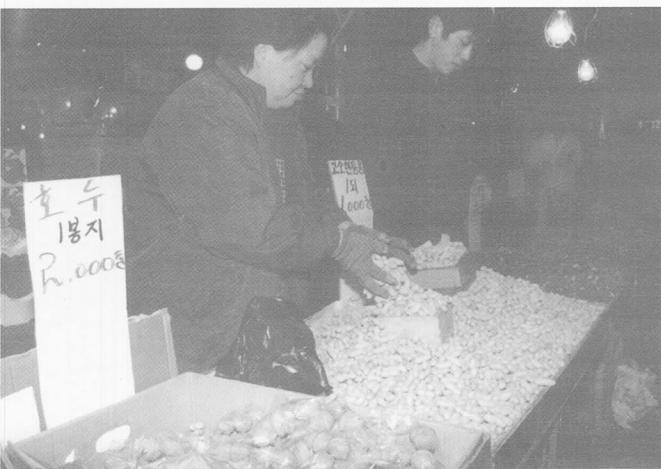
상업민속은 농업민속 및 어업민속과 달리 계절성을 강하게 지니지 않는다. 다만 일정한 주기를 두고 시장이 열리는 집시(集市) 혹은 향시(鄉市)의 경우에는 주기성이 핵심적인 측면이 된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오늘날 이러한 정기시장은 예전처럼 활발하게 개설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은 상설시장으로 바뀌었다. 조선 중기에 들어와서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정기시장은 오늘날 그 자취를 잊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여전히 일산구 일산동에 일산 5일장이 3일과 8일로 끝나는 날 열린다. 비록 일산상설시장을 옆에 끼고서 농산물과 공산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지만, 5일장의 지속은 신도시 고양시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늘날 고양시에는 현대적인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그리고 대형상가가 곳곳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부터 형성된 일산 5일장과 그것이 발전하여 상설시장으로 발전한 일산시장(재래시장)이 상업민속의 핵심적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산상설시장의 경우 개인적으로 고사를 지내는 경우는 있지만, 시장 차원에서 일년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의례를 지내고 있지 않다. 이런 면에서 일산 5일장이 상업민속의 핵심적인 대상이 된다.

필자는 일찍이 1993년 일산 5일장을 현지 연구한 바 있다. 당시 막 신도시가 철로 건너에 신설되어 5일장은 그 명맥을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01년 현재에도 일산 5일장은 그 당시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되고 있다. 비록 일산상설시장 측과 미묘한 갈등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어 임시로 열리는 5일장이 언제까지 그 명맥을 이어갈 지 의문이지만, 민속지적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일산 5일장은 여전히 열리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시대별로 고양시 지역에서 개폐된 5일장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근의 일산 5일장 모습을 민속지로 재구성하려 한다.

(1) 역사상의 고양시 경내 5일장

우리 나라의 정기시장인 5일장의 전신은 조선시대 향시이다. 그와 관련된 자료는 조선 후기인 18세기에 들어와서 많이 등장한다. 영조 46년(1770)에 나온 『동국문현비고(東國文獻備考)』에는 당시의 각 도별 각 읍에 설치된 장(場)의 이름과 장이 열리는 날을 기록하면서, 당시 1,064 곳에 장이 열렸다고 했다. 이 책에 기록된 고양시 일대의 향시로는 3·8일로 끝나는 날 열리는 사포장(巳浦場), 1·6일로 끝나는 날 열리는 사애장(沙崖場), 그리고 4·9일로 끝나는 날 열리는 신원리장(新院里場) 세 곳이다. 이 세 곳이 현재 어디에 속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포장은 오늘날의 대화초등학교 부근으로 성저마을이 있었던 장촌 근처로 여겨진다. 사애장은 오늘날 행주외동의 행주나루가 있던 곳으로 여겨진다. 그 한자 이름이 모래가 있는 암벽이란 뜻으로 행주외동의 모습과 닮았고, 사포장과 함께 당시에는 나룻배가 드나들던 곳에 정기시장이 섰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신원리장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827년경)에 의하면 ‘군 남쪽 10리의 원당면에 있다(在郡南十里院堂面)’이라 적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벽제역 부근이 아닌가 여겨진다.



덕양구 성사동 원당시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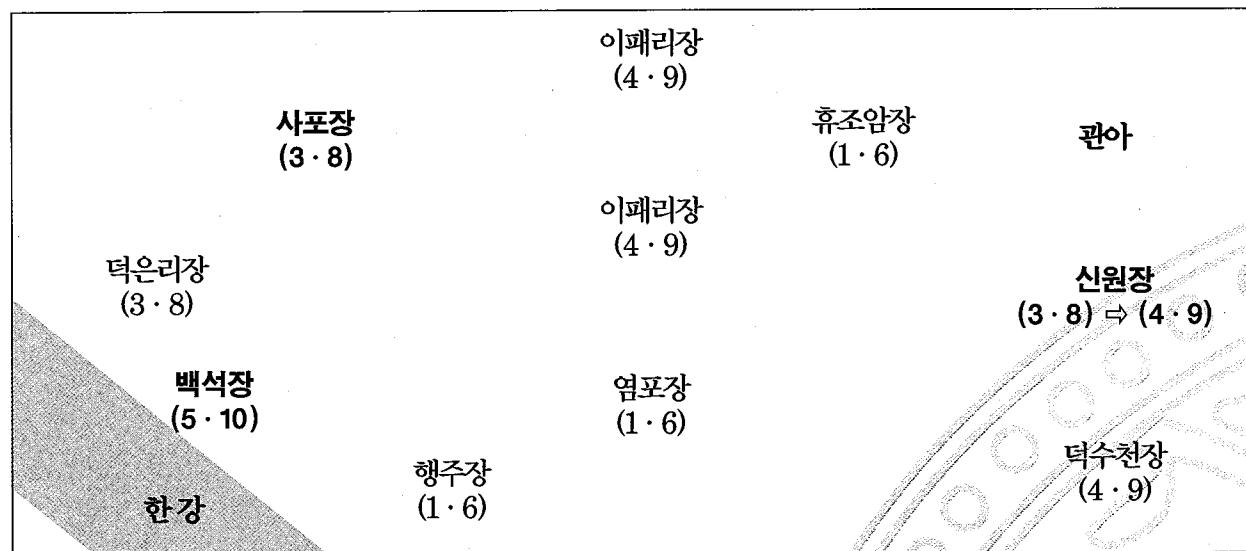


고양시 일산동 일산종합시장 입구 모습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당시 도별로 향시의 숫자와 각 도의 대규모 향시 15곳을 소개하면서 전국에 1,061 곳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도별로 상세한 향시의 이름을 별도로 밝히고 있지 않으며 경기도의 대규모 향시 15곳 중에는 고양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 다만 고양시와 연접한 파주시의 공릉장(恭陵場)이 거론되고 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에 나온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전국의 1,052 곳에서 열리는 향시의 이름, 소재지 및 위치, 개시일, 그리고 주요장에 나오는 주요 물품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오늘날 고양시에 해당되는 향시는 모두 9군데가 나온다. 각각을 소개하면 표와 같다.

향시 명	위 치	개장 일
신원장(新院場)	관아 남쪽 10리(4 km) 원당면 在郡南十里院堂面	3·8 일
휴조암장(休鳥巖場)	관아 서쪽 10리 사리대면 在郡西十里沙里大面	1·6 일
사포장(已浦場)	관아 서쪽 30리 사포면 在郡西三十里已浦面	3·8 일
덕은리장(德隱里場)	관아 서쪽 40리 하도면 在郡西四十里河道面	3·8 일
덕수천장(德水川場)	관아 남쪽 15리 덕수면 在郡南十五里德水面	4·9 일
이폐리장(二牌里場)	관아 서쪽 20리 구지도면 在郡西二十里求知道面	4·9 일
행주장(幸州場)	관아 서쪽 35리 행주면 在郡西三十五里幸州面	1·6 일
염포장(鹽浦場)	관아 서쪽 20리 염포면 在郡西二十里鹽浦面	1·6 일
하폐리장(下牌里場)	관아 서쪽 20리 하폐면 在郡西二十里下牌面	1·6 일



* 가는 글씨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기록된 5일장.
 * 굵은 글씨 중 신원장과 사포장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와 『대동지지(大東地誌)』에 모두 나옴.
 단, 신원장은 그 개장일이 비껴.
 * 백석장은 『대동지지(大東地誌)』에만 나옴.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 5일장의 개장일은 $1\cdot6 \rightarrow 2\cdot7 \rightarrow 3\cdot8 \rightarrow 4\cdot9 \rightarrow 5\cdot10 \rightarrow 1\cdot6$ 의 순환성을 지닌다. 그런데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보이는 고양의 5일장은 휴조암장·하폐리장·염포장·행주장이 비슷한 곳에 있으면서 똑같이 1·6일장이다. 이것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기록이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지역적 순환성이 당시 향시에서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당시의 향시가 세세하게 소개된 배경에는 17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회경제의 변화 양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17~18세기의 조선사회는 그 이전과 매우 다른 양상의 사회문화 현상을 보였다. 벌열정치(闊閑政治)가 행해지면서 소수 양반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여 몰락 양반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농촌에서는 광작(廣作)에 의한 부농이 생기는 한편 영세농들은 이농을 강요당하여 유민의 수가 늘어났다. 또 대부분의 토지는 소수 지주층에 집중되어 반 이상의 농민들이 극빈 상태에서 소작농으로 몰락하였다. 도시에서는 도고상인(都賈商人)들이 상권을 집중하여 부를 축적하면서 물가가 앙등하는 등의 여러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17~18세기 조선사회의 변화는 농촌에서 쫓겨난 이농들로 하여금 자본과 땅이 필요치 않은 보부상과 같은 상인으로 직업을 변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대동법의 실시로 그전의 공납제도가 사라져 나라에서도 수공업자들로부터 쌀을 주고 물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더욱 상업은 발달하였다. 또한 부농자주들은 인삼·담배·목화와 같은 특용작물을 심어 이를 시장에 내어 놓는 경우가 증대하여 자연히 이때의 지방 정기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접어들어 빈번한 기근과 질병의 만연으로 농촌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장시는 주춤하기 시작했다. 자료에 의하면 1830년경에서 1909년까지의 조선 말기에 우리 나라의 장시는 무려 203 곳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고양시 지역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1863년경에 나온 『대동지지(大東地誌)』에서는 사포장(3·8일), 백석장(白石場; 5·10일), 신원장(4·9일)이 적혔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사포장만이 개장일도 변함 없이 같고, 신원장은 개장일이 3·8일에서 4·9일로 바꿨고, 나머지 5일장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백석장이 새로 생겼다. 아마도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당시 5일장이 $3\cdot8 \rightarrow 4\cdot9 \rightarrow 5\cdot10$ 으로 통합된 것으로 여겨진다. 동시에 판아와 사포장 사이에 있던 4곳의 향시는 쇠퇴하고 덕운리장과 행주장이 백석장으로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덕수천장은 읍장에 해당하는 신원장에 병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나라 장시는 새로운 면모로 바뀐다. 그 동안 국가의 통제를 강력하게 받지 않았던 장시는 일제의 경제적 침탈 목적에 의해 그 운영권을 일제에 빼앗기게 된다. 더욱이 일제는 1914년 9월에 총독부령으로 「시장규칙」을 발표하여 시장을 제1호, 2호, 3호 시장으로 구분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제3호 시장을 제외하고는 도·군·부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니면 시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결국 일제는 이러한 「시장규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시를 완전히 장악하였고, 제1호 시장에 들었던 장시를 '정기시장'이라 칭하면서 그 수를 326 곳이나 늘려 장시를 경제적 침탈 수단으로 삼았다.

일제시대의 기록인 『한국수산지(韓國水產誌)』(1908년)에 의하면 백석장(5·10일)과 일산장(3·8일)만 고양지역의 5일장으로 나온다. 곧 1908년 경의선 철로의 개통으로 인해 읍장의 위치에 있던 신원장은 사라지고, 사포장이 일산역 근처로 옮겨져서 고양지역의 대표적인 5일장으로 자리를 잡는다. 백석장은 지금의 일산신도시 지역인 백석마을에 있었다. 한강에 배가 드나들었던 당시에는 이 곳까지 뚝단배가 들어와서 큰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흰돌장'이라 불렸다. 주로 농산물·소금·어류·짚신·갓 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백석장에 붐볐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1925년 홍수 이후에 제방을 설치하자 한강변에 섰던 백석장도 의미가 퇴색하여 결국 일산장만이 5일장의 명맥을 이어서 오늘날에 이른다.

(2) 1993년의 일산장 민속지

일산장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08년에 만들어진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로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은 서울역을 출발하여 40분쯤이면 신촌·화전·능곡·백마를 지나 일산역에 닿지만, 처음 철로가 열렸을 때, 기차는 서울역에서 곧장 달려 일산역에 처음 정차했다. 자연히 막혀버린 한강의 뚝단배 대신에 일산역에 닿는 기차가 쓸만한 물건들을 부려 놓는 구실을 했고, 고양시의 옛 땅에 살던 사람들의 발길도 일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전에 있었던 모든 5일장을 아우르고 일산장만이 고양시의 옛 땅에 유일한 전통시장이 되었다.

고양시로 바뀐 지금도 일산장은 여전히 3일과 8일로 끝나는 날 일산에서 전을 펼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산장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장날이면 ‘일산종합시장’ 입구에는 죽물제품을 파는 장꾼이 자리를 잡는다. 일산종합시장에는 정육점·어물전·떡집·웃집·침구점 등 보통 상설시장이 갖추고 있는 가게들이 모두 있다. 그러나 일산장날 일산종합시장 안에 난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뒤편으로 가보면 여느 시골 5일장을 무색케 할 정도로 봄비는 일산장이 나온다.



일산 5일장 할머니 채소 장꾼(전문)



일산 5일장날 소일거리로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

“뭐든지 신토불이가 좋습니다. 작고 예쁘면 모두 신토불이예요”라고 외치면서 고등어를 파는 아주머니는 요사이 하도 우리 것이면 좋다기에 손님 시선을 끌려고 ‘고등어신토불이론’을 이렇게 펼친다. 한쪽 귀퉁이에서 국화·장미·안개꽃 따위를 팔고 있는 할머니는 엄마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더 귀여운지 연신 아이와 말수작을 건넨다. 옷전에는 근처에 군사 시설이 많아서인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군복을 닮은 짐바·바지·신발 등이 많이 나와 있다. 감 파는 손수레 앞에서는 한 입 가득 감을 입에 베여 문 아주머니와 장꾼 사이에 흥정이 붙는다. “하나 더 줘요”, “아 글쎄 맛보라고 하나 더 준 것은 어떻게 하고 더 달래요”라면서 티격태격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1993년 일산신도시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일산장은 오히려 이렇게 풍성하게 변했다. 그전에만 해도 일산장날은 한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장세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런데 신도시에 입주한 젊은 부인들이 마땅히 물건 살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일산장을 찾자 덩달아 일산장을 평소에 외면했던 장꾼들마저 합세하여 장사진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일산종합시장 뒤편으로 난 옛 고양경찰서와 원당 사이의 6차선 아스팔트길이 장터로 털바꿈을 하였다.

일산종합시장 바로 뒤편에 자리잡은 장꾼들은 그런대로 오래된 장돌뱅이들이다. 이들은 김·파일·채소·어물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종합시장과 연결시켜 팔고 있다. 심지어 한켠에는 강아지·오리·닭을 종이 상자에 넣고서 판매하는 가축전도 자리를 잡았다. 이에 비해 종합시장을 벗어난 신도시 쪽 도로에는 온통 옷장수들과 신발장수들뿐이다. 옷전도 이렇게 많아보니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 양복 웃도리만을 파는 옷전, 여자 속옷만을 파는 옷전, 바지만을 파는 옷전, 허드레 작업복만을 파는 옷전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옷전끼리 경쟁이 불자 “와싸다”, “쎄일”과 같은 선전문구를 종이 상자 한쪽에 써 붙인 옷장수들도 많다. 그 사이사이에는 굴·홍합·계·바지락 같은 먹을거리를 파는 포장마차들이 김을 모락모락 올리면서 지나는 사람들의 입맛을 다시게 한다. 그야말로 도시 속의 풍물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1993년의 일산장은 들썩인다.

15년 동안 채소장수만을 했다는 문산이 고향인 채소전 주인은 “이것도 잠시뿐이라요”라며 일산장의 장래를 예견한다. 일산장이 1993년 들어 갑자기 커지자 물건 사는 손님보다 장꾼들이 더 많아졌고 결국 장사는 전에 비해 더 안 된다는 것이 거의 설명이다. 덩달아 종합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이들이 계속 고양시에 민원을 넣어서 5일장 장꾼들을 노점상으로 모니, 언젠가 한번은 일산장 장꾼들이 크게 당할 것이라는 말도 그는 덧붙인다. 특히 신도시에도 백화점과 슈퍼마켓이 속속 들어서니 주차할 공간도 마땅찮은 일산장을 신도시 주민들도 찾지 않을 것이라 일산장은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그의 일산장 미래론이다.

1960년대 일산장에 나오는 채소는 품질이 좋아 서울 뿐 아니라 수원·인천 등지에서도 이것을 사러 사람들이 몰렸었다. 당시에는 일산장 장사가 제법 잘 되어 의정부는 물론이고 강원도 횡성 같은 데에서도 장꾼들이 왔다. 아무리 서울에 인접한 곳이라 해도 공신품을 제하면 나머지 물건들을 고양사람들 모두 군내 유일한 5일장인 일산장에 기대어야 했으니, 당시의 일산장 들썩임을 짐작하고 남는다. 그러나 서울로 가는 버스가 시내버스·좌석버스로 운행되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일산장을 찾는 고양사람들은 줄어들었다. 대신 서울의 신촌시장이나 모래네시장을 찾는 고양사람들이 늘었다. 다시 최근에 일산장이 붐비고 있지만, 그것 역시 몇 대를 살아온 마을과 논·밭이 외지 사람들의 살림집으로 바뀌는 고통을 겪었던 고양사람들에게는 남의 일처럼 보인다. 그들도 ‘군민’에서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 버렸기 때문에 5일장에 기대는 구석 보다 현대식 상가에 그 의지해서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일산 5일장 상설시장 입구의 곡물전



일산 5일장 상설시장 입구의 뺨튀기 장꾼

(3) 2001년의 일산장 민속지

한국의 전통적인 향시인 5일장은 5일에 한번씩 열리는 정기시장을 가리킨다. 장날은 보통 5일 간격으로 열리는 날을 두고 1·6장이니 2·7장이니 하고 부른다. 일산장은 3일과 8일로 끝나는 열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 3·8장이라 부른다. 원래 음력으로 한 달이 30일이었기 때문에 5일마다 열리는 장은 반복하여 열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37년 일제는 그 전에 음력을 기준으로 하여 열리던 장날을 모두 양력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31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장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

제6장 생업과 공동생활



일산 5일장 B지역
일산~원당간 새로난 도로 양쪽으로 장이 서는 모습



일산 5일장 B지역 상설시장 입구



일산 5일장 B지역
새로난 도로가에(구 고양경찰서 앞)버스 정류장이 생겨났다



일산 5일장 B지역 새로난 도로에서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있다



일산 5일장 B지역 '일산장 냉면 잔치국수' 식당 간판



일산 5일장 B지역 기축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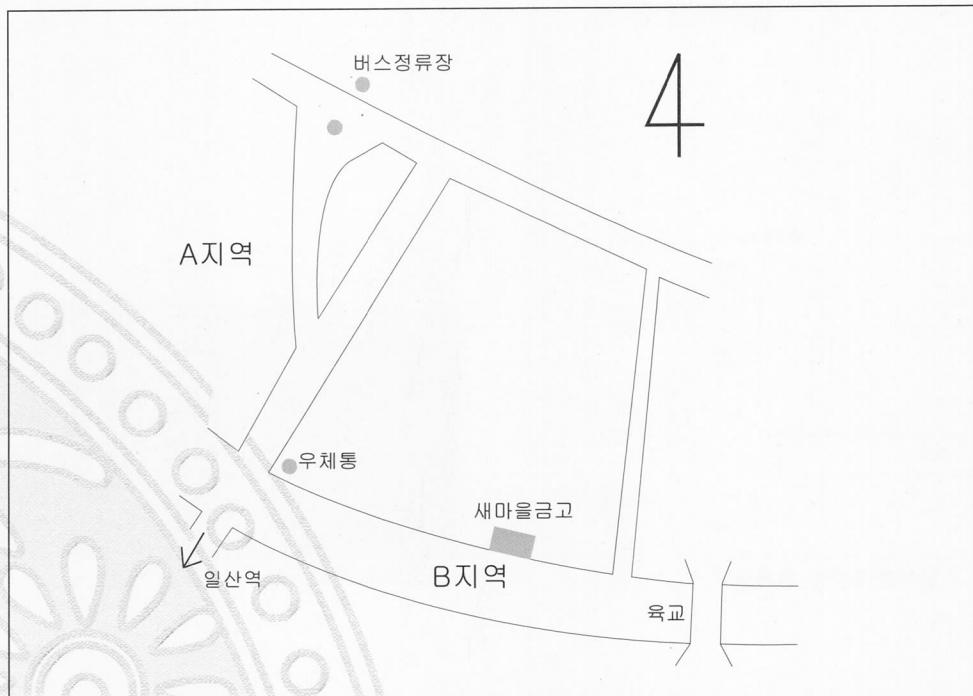
일산 5일장 B지역 육교 아래의 잡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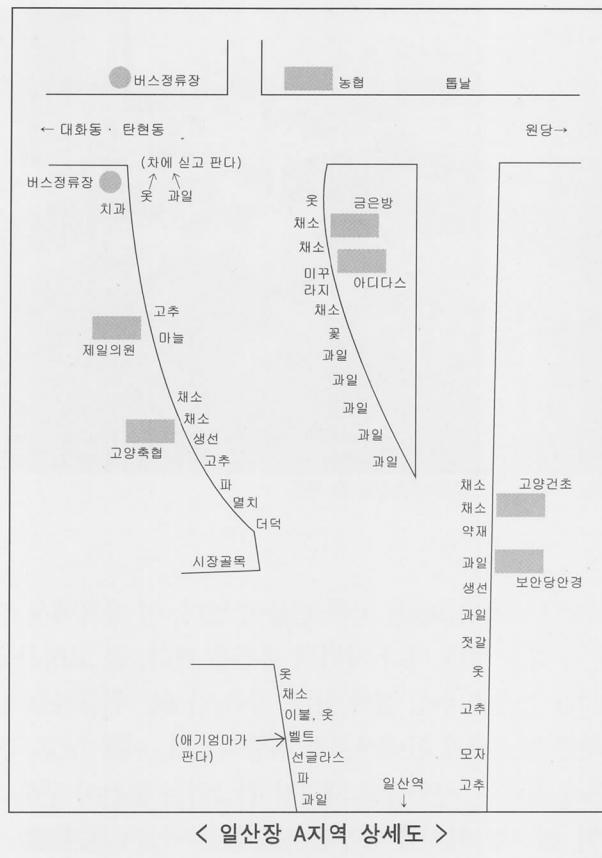
일산 5일장 B지역 수미유료 주차장의 전 풍경

5일장에는 ‘장옥(場屋)’이란 건물이 있다. 이 장옥에서 상인들은 구획을 정해 각각 자기의 물건을 판다. 곧 고정건물인 가게가 장옥에 수십 집씩 있다. 장옥 안에는 취급하는 물건에 따라 일정하게 판매장소가 집중되었다. 이를 두고 ‘전(廳)’이라 불렸다. 상인들도 제각각 취급하는 물건이 구분되어 있어, 쌀·콩 따위를 다루는 상인들은 곡물전(穀物廳)을 형성하여 서로 붙어서 경쟁을 하며장을 보러 온 사람들을 기다린다. 이런 장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법 오래된 고정 장꾼들에 해당된다.

2001년 일산장에는 장날을 위해 마련된 장옥은 없다. 원래 지금의 일산상설시장 자리가 장옥이 있던 곳이었는데, 한국 전쟁 이후 이곳이 상설시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장옥이 없어졌다. 그 대신 오늘날 일산장은 전부 상설시장 주변의 길거리에서 열린다. 이것을 ‘난전(亂廳)’이라 부른다. 어지럽게 장사할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에서 이런 난전이란 말을 붙였다. 전문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인근 농촌에서 나물이나 채소를 들고 나온 아주머니·할머니들이 이런 난전을 펼치는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장날이면 자기 집에서 생산한 것을 들고 나와 장터에서 빈자리를 찾아 앉는다. 골목이나 장옥 앞에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는 장꾼들은 난전을 펼치다 다른 장꾼들과 밀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난전으로만 형성된 일산장의 경우 항상 나오는 장꾼들은 자신의 자리를 암묵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아래에 일산장의 오늘날 배치도를 그렸다. 계절마다 다루는 물품이 조금씩 달라 변할 수 있지만, 2001년 가을의 일산장 배치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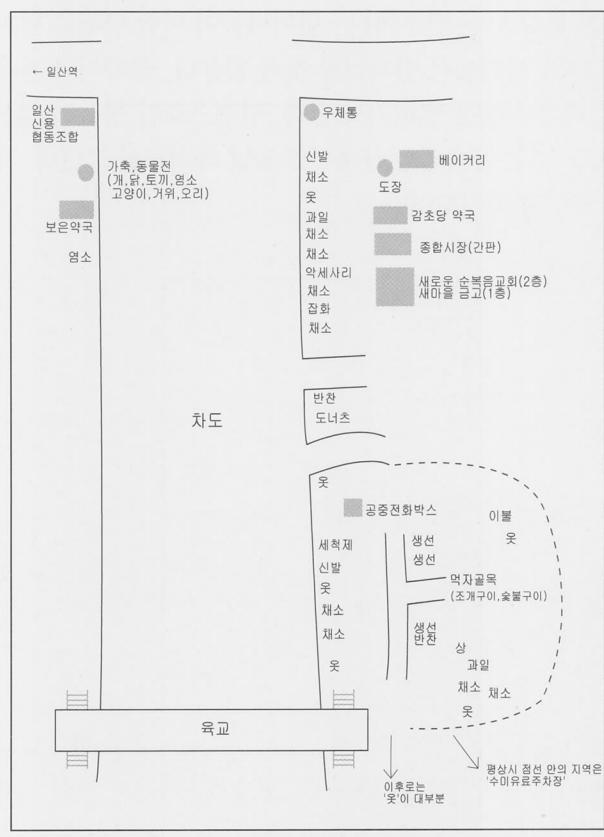
제6장 생업과 공동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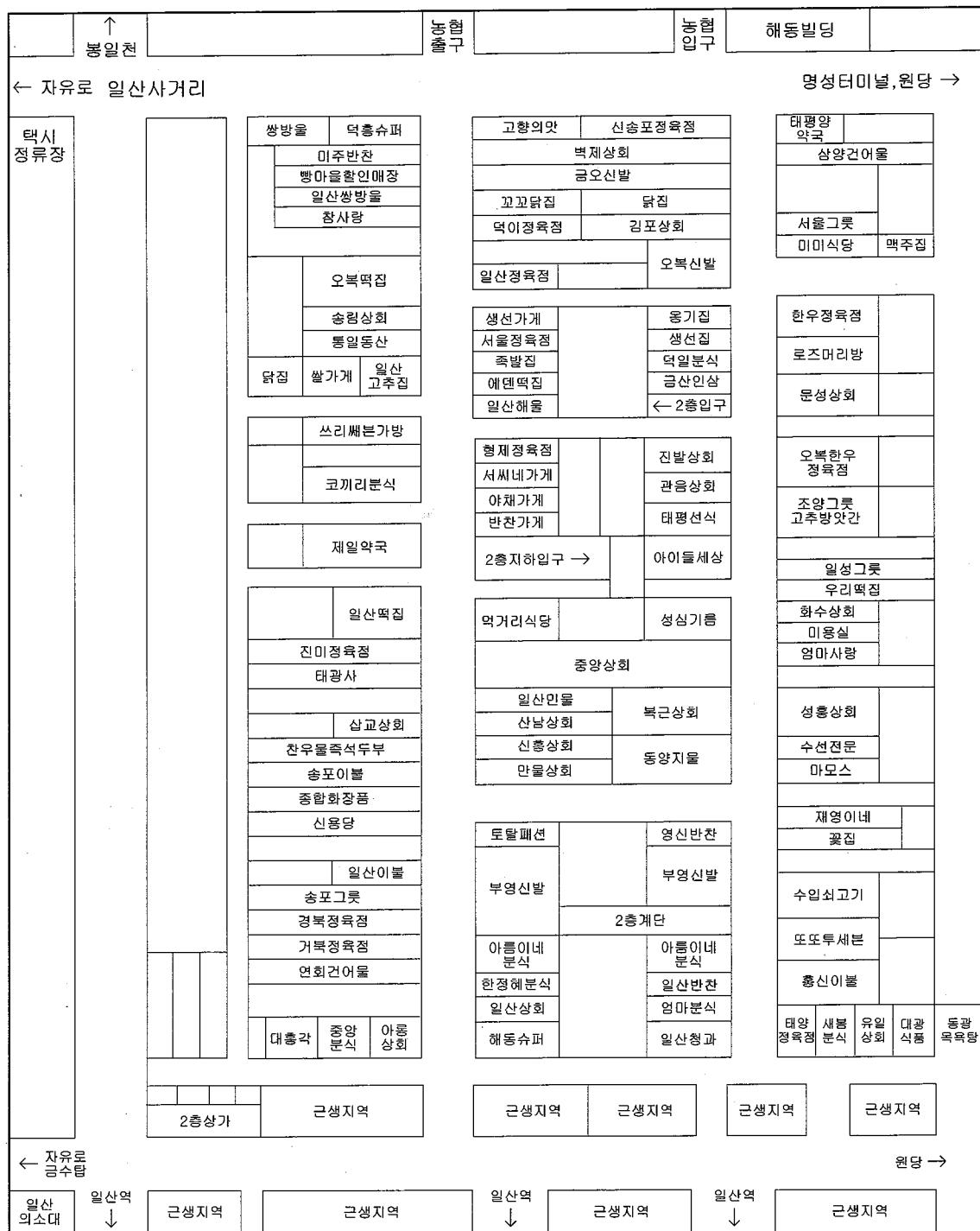
일산 우시장 터 (현재 일산노인정 부근)



통일로 휴게소 민예품전시관(고양시 민예품)



곡릉천변 관산장터의 원경모습 (앞은 곡릉천)



〈 일산 종합시장 평면도(1층) 〉

장옥에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난전 중에서도 크게 자리를 잡은 장꾼들도 있다. 이들은 주로 옷이나 신발같은 도시에서 나는 물건들을 차에 싣고서 이동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5일장이 열리는 날을 알고서 인근의장을 순회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일산장에서 만난 옷장수는 1·6일에 금촌장, 2·7일에 김포장, 3·8일에 일산장, 4·9일에 문산장, 그리고 5·10일에 적성장을 다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개의 장날 중 하루는 물건을 마련하거나 집에서 쉰다.

장꾼들은 장날인 장에 가면 어김없이 ‘장세(場稅)’를 내야 한다. 장옥에 가게를 가진 장꾼이나 난전을 펼친 할머니나 모두 장세를 낸다. 장세는 500원이나 1천원쯤 된다. 이런 장세를 걷는 사람은 장터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이다. 장터는 개인의 땅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 땅에 들어 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서 이 장세로 그 이의 월급과 장터 청소를 하도록 한다.

일산장에는 일산동 노인회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1천원 씩 장세를 받는다. 대부분 길가에서 전을 펼치기 때문에 특별하게 땅 소유자가 없다. 다만, 상설로 들어선 일산종합시장 안의 상인들은 장꾼들에 대해 불만이 많다. 그들의 영업이 장날이면 그 외 날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는 장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 이에 비해 현대아파트 앞의 수미유료주차장은 장날 장꾼들에게 유료로 빌려준다. 임대료는 주차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에 맞추어 지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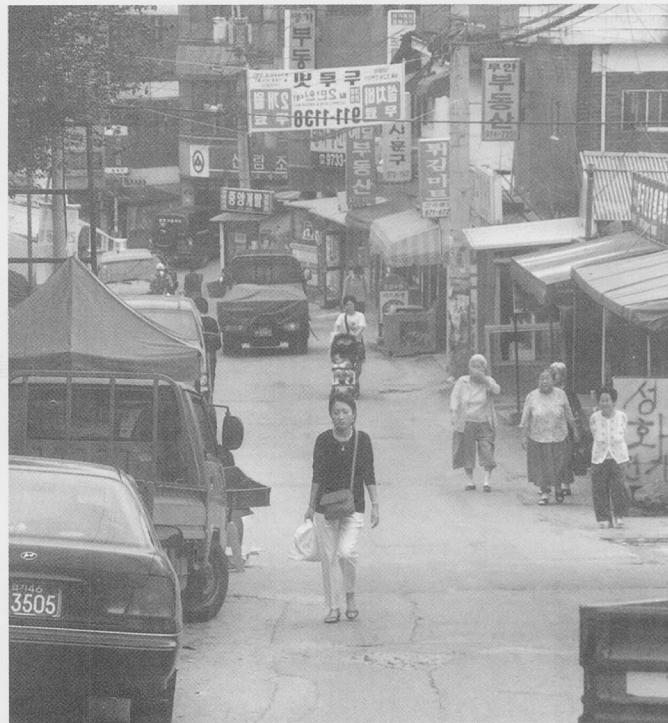
그래서 수미유료주차장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판이 붙어 있다. “주차금지 : 3, 8, 13, 18, 23, 29일은 일산민속 5일장 날이니 만큼 주차를 금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일산 상인회 일동”. 이와 같이 일산 5일장은 오늘날 이곳 주민들에게 ‘민속’이라는 의미로 열리고 있다. 비록 장날에서 교환하는 물건은 공산품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분위기와 풍경은 여전히 전통사회의 5일장이 지닌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산 5일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개념을 뛰어 넘는 삶의 매개 작용을 한다. 굳이 물건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한가한 철에는 장날에 한번쯤 나와 보는 사람들도 많다. 장날 나오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고, 신기한 물건들이 새로 들어 왔으면 구경거리도 충분히 되기 때문이다. 또 장날 물건을 사고 난 후 장터에 있는 식당에서 국수나 죽을 별식으로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면 그 재미가 쏠쏠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산 5일장에는 이런 의미의 ‘먹자골목’이 여러 군데 있다. 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수미유료주차장에는 조개·돼지·낙지 등을 구워서 술과 함께 판매하는 야외식당이 변성을 한다. 상설시장에 아예 점포를 빌려서 장터 식당을 운영하는 집들도 있다. 그 중 하나인 “장터먹거리” 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뉴를 판매한다.



능곡 우시장 자리 (능곡 토당노인정 부근)



능곡 장터 자리 (능곡교회 부근)

이 름	가 격	이 름	가 격	이 름	가 격
돼지껍데기	3,000	오징어볶음	5,000	쭈구미두루치기	5,000
무뼈닭발	3,000	곱창볶음	5,000	쭈구미구이	5,000
장터국수	3,000	수구레볶음	5,000	메추리구이	5,000
숯불낙지볶음	10,000	쭈구미볶음	5,000	장터모듬구이	10,000
조개탕	10,000	매운탕	10,000	해물잡탕	15,000

메뉴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터국수를 빼고 나면 식사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술안주용이다. 아울러 일반 식당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장터라는 특색을 지닌 음식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돼지껍데기나 뼈가 없는 닭발은 쌈값에 술 한잔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다.

앞의 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산 5일장은 크게 A지역과 B지역으로 나뉜다. A지역은 채소 및 농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B지역은 상설시장 쪽에는 반찬·생선·채소·먹자점포, 그리고 육교 동쪽에는 옷이 중심이 되어 시장이 형성된다. 원래 A지역은 일산역이 중심이 되어 5일장이 열렸을 때 형성된 구역이다. 일산역 앞에서 지금의 버스정류장까지 일자로 만들어진 도로변에 장꾼들이 들어섰다. 그러나 일반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중심은 버스정류장이 되었다. 따라서 버스정류장 근처에는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곡물을 주로 판매하는 곡물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지금은 할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채소와 잡곡을 파는 자리로 바뀌었다. B지역은 1993년 새로 길이 확장되면서 형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주로 공산품을 판매하는 장꾼들이 자리를 잡았다.

특히 현대아파트 앞 육교 동쪽으로는 옷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장꾼들이 그야말로 장사진을 친다. 동시에 상설시장 맞은편 일산신용협동조합 옆 골목에는 비교적 중심시장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가축전이 열린다. 사실 전통적인 5일장의 특징적인 상품 중의 하나는 가축이다. 그 중에서 쇠전은 5일장의 핵심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다. 한참 일산장이 활발했던 일제시대와 1960년대까지 일산 5일장에도 쇠전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고양사람들은 제법 좋은 소를 사고 팔려면 일산장의 쇠전을 마다하고 파주군의 봉일천에 있는 공릉장을 찾았다고 한다. 그만큼 공릉장 쇠전은 규모가 커 좋은 소와 송아지를 구할 수도 있었고 좋은 값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도 쌀·면포·마포·명주·어염·목기·옹기·사기·유기·돛자리·송아지 등이 공릉장의 대표적인 물품이라 소개했다. 그러나 오늘날 공릉장은 완전히 사라졌고, 일산장에도 쇠전을 찾아볼 수 없다.

일산 5일장에서 가장 먼저 전이 서는 곳은 A지역이다. 늦은 봄에서 초가을 사이에는 보통 아침 6시경에 장이 선다. 특히 가을에는 고추전이 가장 먼저 제일의원과 고양축협이 있는 사잇길에 들어선다. 인근 농촌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와 농산물을 버스에싣고 나오는 할머니들도 이른 아침에 자리를 잡는다. 봉일천에 사는 할머니는 아침 버스로 일산장에 와서 버스정류장 근처의 금은방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옆에 앉은 할머니는 차로 채소와 잡곡을 들고 나와서 비교적 대규모로 판매를 한다. 서로 경쟁이 붙고, 직접 재배한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사온 것을 직접 재배한 것처럼 속인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장사가 잘 되면 오후 5시경에 전을 정리하고 버스로 되돌아간다. 이들 할머니들은 오로지 일산 5일장만 다닌다. 비록 하루에 많이 팔아도 2~3만원이지만, 소일거리 겸 잡비를 버는 데 장날 나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고추·신발·생선·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고, 이들은 인근 5일장을 순회하면서 장사를 한다. 일산동에 살면서 직접 손수레에 고추를 싣고 장날에 나오는 최씨(1937년생, 남)는 충북 제천에 오랫동안 거래하는 가게가 있어 그 곳에서 고추를 보내주면 장날 나와서 판다. 10년전만 해도 금촌장(1·6), 김포장(2·7), 법원장(3·8), 문산장(4·9), 적성장(5·10)을 다녔지, 일산장에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5일장을 다니지 못하고 일산장에만 온다. 그는 일산수협 앞이 자신의 정해진 자리라고 생각한다.

B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장꾼들은 보다 전문화된 5일장 장돌뱅이들이다. 남대문에서 액세서리를 사와서 판매하는 홍씨(1945년생, 남)는 지금도 금촌장(1·6), 일산장(3·8), 문산장(4·9), 적성장(5·10)을 돈다. 2일과 7일로 끝나는 날에는 시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집에서 쉬기도 한다. 그는 송포에 집이 있다. 보통 점심은 배달하는 백반(4,000원)을 사 먹는데, 장사가 안 되면 그 돈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문산이 집인 빈찬장수 할머니 김씨(1932년생)는 30여 년 동안 일산 5일장의 이 자리에 나와서 반찬을 판매한다. 단골관계가 형성되어 마련해 오는 반찬은 대부분 다 팔고 간다. 일산장과 문산장만 다닌다. 나머지 날에는 집에서 반찬을 준비한다.

A지역과 B지역의 육교 서쪽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양군 사람들이라면, 육교 동쪽의 옷장수들은 대부분 외지인들이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차를 가지고 일정한 순회 장을 정해두지 않고, 수시로 정해서 다닌다. 자연히 호객행위가 치열하다. 간혹 차를 주차한 채 영업을 하여 도로교통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한다.

이렇듯이 오늘날 일산 5일장에 나오는 장꾼들은 몇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역에서 적은 양의 물품을 팔기 위해 일산 5일장만 나오는 할머니들이 버스정류장 근처에 자리를 잡는다. 이들은 특별하게 자신의 자리를 정해두고 있지 않다. 이들이 주로 판매하는 물품은 농산물이다. 둘째 일산장을 비롯하여 파주·의정부·김포·강화 일대의 5일장을 순회하는 장꾼들이 있다. 이들이 이 일대를 순회하는 이유는 집에서 서로 연계되는 5일장을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이동이 용이한 공산품을 다룬다. 비교적 고정적인 전이 마련되어 있다.

셋째, 직접 차에 물품을싣고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장꾼들이다. 이들은 대량의 공산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로 고정적인 전이 정해져 있지 않다.

(4) 소 결

고양시에서 역사상 부침을 거듭했던 5일장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오늘날 일산 5일장만이 남았다. 그러나 상설시장인 일산종합시장의 상인들과 장꾼들 사이에는 일정한 감정적인 골이 있다. 특히 일산종합시장의 노후화를 해결하고, 각종 백화점과 경쟁하기 위해 상인협회에서는 상설시장을 현대적인 건물로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만약 이 일이 성사되면 일산 5일장은 그 명맥을 잃든지, 장소를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따라서 전통의 유지라는 면에서 그 맥락을 이어오고 있는 일산 5일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원래 일산 5일장은 경의선 및 일산역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밝혔다. 이런 면에서 일산역과 일산 5일장을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적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일산 신도시 지역과 철로를 사이에 두고 공간적 분할이 이루어져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볼 때, 일산역과 일산 5일장을 연계하여 민속5일장을 재현하는 일은 고양시 차원에서 연구해 볼만한 과제라 여겨진다. 아울러 전통적인 시간개념이 개입된 5일장을 7일장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일산 신도시 지역에 5일장의 문화적 복원을 시도할 수 있다. 비록 상권의 확장으로 인해 상업권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산 5일장을 새로운 개념으로 리뉴얼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것은 농촌과 도시로 구성된 고양시가 추구해야 할 시정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고양시의 농업·어업·상업과 관련된 민속현상을 현재적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고양시는 농업을 중심 축에 두고, 어업과 상업이 부분적으로 행해진 생업경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한말까지 고양지역은 그 중심을 고양관아 근처(현재의 고양동)와 행주나루(현재의 행주외동)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후 한강의 수로가 제한되고, 이에 대응하여 경의선 철로와 신작로가 개통되어 일산역(현재의 일산동)이 그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 모습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고양사람들의 비제도적인 삶의 모습인 민속현상도 한국 근현대사와 일정한 고리로 연결되어 변모를 거쳐왔다. 특히 농업민속은 농업기술의 변화와 한강 이용의 변화상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변화를 겪었다. 수로를 정비하고, 농지를 개혁하면서 전통적인 농법이 사라지고, 일본식 농법이 도입되었다. 특히 일제시대에 줄 모내기를 시행하면서 단위 면적당 소출이 증가했고, 두레조직도 김매기 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제초제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해 노동력을 서로 나누는 두레조직이 의미를 잃었고, 개별 가정 중심의 농업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농업 생산활동을 통해 이어졌던 이웃과의 연결 고리도 끊어지고 개별화된 전문 농업 위주로 모습을 바꾸었다. 자연히 농업민속의 지식이 단절을 가져오는 계기가 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한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어업활동은 조선시대부터 전문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대규모 어업 기술이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식으로 바뀐 다른 지역에 비해 고양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어로 방식이 194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특히 수수이삭으로 참개를 잡는 현촉서포해법(懸蜀黍捕蟹法)은 오늘날 생존하는 어부들 사이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정도로 전통적인 어로 방법이다.

한국의 대부분 5일장이 읍장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동시에 상설시장으로 바뀌는 과정에 놓인 처지에서 일산 5일장이 상설시장과 함께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양의 민속을 풍부하게 하는 자원이다. 다만 도로교통의 불편과 제도적인 지원의 미비는 잔존 시장으로 일산 5일장을 퇴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부침을 거듭한 일산 5일장을 새롭게 개념화하여 유지시키는 문화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업민속은 주된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털바꿈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생업형태에서 나타난 민속현상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와 함께 생업민속이 지닌 경험적인 지식마저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지되든지, 아니면 사라진다. 이런 면에서 생업민속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전통적인 양상에서의 농업·어업·상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공업·상업 등의 경제활동에서 나타난 민속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럴 때 민속현상은 현재 거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문화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본 보고서는 현재 주된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업민속을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주요 참고문헌〉

『京畿邑誌』

『高陽郡誌』

『蘭湖漁牧志』

『大東地誌』

『東國文獻備考』

『萬機要覽』

『松南雜識』

『新增東國輿地勝覽』

『林園經濟志』

『佃漁志』

『韓國水產誌』

류기선 : 「농업생산과 교환」, 한국선사연구소·경기도·단국대학교한국민족학연구소,

『일산 사람들의 삶과 문화—역사 민속 조사보고』, 1992.

류기선 : 「교통과 장시」, 한국선사연구소·경기도·단국대학교한국민족학연구소,

『일산 사람들의 삶과 문화—역사 민속 조사보고』, 1992.

문화재관리국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9(경기도편), 문화재관리국, 1975.

朴九秉 : 「송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朴九秉 : 「웅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뿌리깊은나무 : 「한국의 발전」(경기도), 뿌리깊은나무사, 1983.

주영하 외 : 「한국의 시장—사라져가는 우리의 5일장을 찾아서」(제1권 경기도·강원도·인천·

서울 편), 공간미디어, 1995.

공동노동조직과 협력체계

임 장 혁 (중앙대 교수)

- 1. 머리말
- 2. 고양지역 공동노동조직과 협력체계 조사내용
- 3. 고양지역 공동노동조직의 성격과 특징
- 4. 맷음말

1. 머리말

1) 조사의 필요성

한국 농촌 사회는 일제시대 아래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토지조사사업은 사적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확립시키는 과정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동족 공유지, 촌락 공유지 등에 큰 타격을 미쳤고, 행정구역 개편에서 나온 면제(面制)의 시행은 촌락에 대한 면의 지시와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촌락 자체의 자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¹⁾ 토지조사사업과정을 비롯한 일제 하의 전 시기를 통하여 수 많은 농민이 토지에서 유리되어 연 해주 등 강제 이주라는 피해적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이와 함께 지주-소작관계는 더욱 진전되어 갔다. 그 결과로 농업 노동에 있어서 임노동이라는 새로운 요소도 등장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본 자본주의에 대한 한국 경제 및 한국 농촌 경제의 종속이라는 기본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위와 같은 토지의 사유권 확립과 촌락 자치 기능의 약화, 농촌계층 분화의 심화와 임노동의 사용 등은 기존의 공동체적 관습 등을 급격히 악화시키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쳐 일제 말기가 되면 전통적인 농업공동노동조직인 두레, 호미씻이 등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 후 1960년대부터 추진된 산업화 정책은 1970년을 전후로 농업 및 농촌 중심의 전통사회를 공업 및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로 변화케 하는 구조적 변환을 이끌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농촌사회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도시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 농업의 기계화와 상업화, 토지 이용의 다양화와 고도화, 농촌 사회계층의 분화, 농민의 의식 및 생활 양식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

1) 양희수, 1967, 『한국 농촌의 촌락구조』, 고대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총서 9, 430쪽

화, 노동조직의 변화, 생활권의 변화, 소비 형태의 변화, 공동체 의식의 약화 내지 소멸 등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한국 농촌 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자급자족적 경제체계에서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 체제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농촌은 상대적으로 정체 과정을 밟는 반면, 도시는 고용기회의 증대에 따라 광범위한 이농현상이 발생하면서 도시슬럼화에 따른 무허가 판자촌 등장과 같은 사회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농업 생산 과정에서는 농기계의 사용이 증대하고 있으나 소농경제라는 기본적인 한계 속에서 자본주의적인 영농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농으로 인해 감소된 노동력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되어 가족 노동에 의거한 소농적 경영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농번기에 필요한 노동은 품앗이나 작업단, 일시적인 임노동의 사용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농촌 사회내의 사회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비단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서로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화폐를 통해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빈번한 인구 이동과 각 방면에서 밀려오는 도시 소비문화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일 뿐만 아니라 고양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은 한강 북쪽에 위치하여 휴전선에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인천, 부천, 안양 등에서 볼 수 있는 공업도시로의 발전이 아니라 근교농업지대 혹은 서울 근교의 위성도시로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업분야에서 고양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짐깐 살펴보자.

1960년대 아래 고양의 총 가구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농가 호수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로는 오히려 농가 호수 자체의 절대량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60년에 9,181호이던 농가 호수가 1965년에는 4.0%의 증가를 보여 9,548호가 되었고, 그 이후 1970년까지는 14.2%가 증가한 10,900호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농가 호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1970~1975년 간에 66%가 감소하여 10,180호에 머물렀으며, 1975~1980년 간에는 다시 16.3%가 감소하여 8,516호에 그쳤고, 그 위에 1980~1983년 간에는 0.1%가 줄어든 8,504호로 집계되었다. 1998년의 경우에는 전체 농가 호수가 5,956호, 총 가구 수가 246,802호(총 인구 752,396)가 되어 농가율은 2.4%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고양에만 한정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이는 결국 전통적으로 비옥한 농업지대로 자리해 왔던 고양지역의 산업적 특징이 1970년을 고비로 하여 그 성격을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과 그에 따른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의 결과로 인해 수도 서울이 인구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서울 도심으로부터 자동차로 30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고양지역이 대도시 근교지대로 차츰 변모해 갔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 외에도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신도시 개발은 기존의 고양 지역의 농촌 공동체 생활 자체의 해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생활공동체의 해체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조응하여 공동노동조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송포지역의 대표적인 마을 음송마을, 곧 대규모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산구 구산동 노루뫼마을, 도시와 옛 한옥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 글은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일산신도시 개발로 생활터전이 사라졌거나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고양시를 조사대상으로 전승이 중단되었거나 일부 전승되고 있는 공동노동조직을 민속지적 현재(ethnographic present)의 관점에서 조사하여 민속지를 작성하는 데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양지역의 공동노동조직의 변화 양상에 대한 논의는 피하고, 1990년 이전의 이 지역 공동노동조직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것의 과거 전승실태, 내용상의 개략적인 면모, 유형적 특징 등을 파악하여 기술한 뒤, 그로써 종합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꾀해 보고자 한다.

2) 자료수집 과정과 방법

이 글은 고양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거나 전승된 공동노동조직의 일상을 밝히고, 아울러 복원 가능한 부분은 복원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에 접근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고양시가 1990년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동체가 상당 부분 해체된 상태에서 1990년 이전이라는 특정 시기의 한 주제에 대한 민속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개의 민속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지가 특정한 공간으로 한정되고, 또한 특정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영위하고 있는 정보 제공자가 특정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고양 지역의 공동노동조직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자료 제공자(key informant)의 선정을 들 수 있다. 주요 자료 제공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속지 서술 전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해체라는 독특한 경험을 안고 있는 고양 지역을 조사할 경우 보다 신중하게 다가온다. 주요 자료제공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 사정에 밝은 고양문화원의 절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고양문화원의 오수길 향토사 상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공동노동조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주요 자료 제공자 선정이라는 문제와 아울러 조사지역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선정된 조사지역(구 행정지역 명칭)이 옛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양촌마을, 옛 일산읍 마두리 강촌마을, 옛 송포면 가좌리 음송마을, 옛 벽제읍 성석리 진밭마을 등 4개 마을이다.



일산역 뒤로 후곡마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마두동의 일산구청 앞 광장의 겨울 풍경

둘째, 이 작업과 병행하여 필자는 고양 지역의 공동 노동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각종 지표조사 보고서, 논문, 저서, 군지, 통계연보, 고양시 홈페이지, 기타 팜플렛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지역의 종합적인 민속적 제사실(folkloric facts)을 취합하기 위하여 경기도박물관에서 1995년 3월에 경기도 행정망을 통하여 총 19개시 14개군 6,991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보고서²⁾에서 고양 지역의 15개 마을의 공동 노동 조직에 대한 간략한 1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연번	지 역	마 을	가구수 / 인구수 (남/여)	공동 노동 조직	소설시기
1	가좌동 음송마을	농촌	68가구	상두계	40년 전
2	구산동 장산마을 노루메	농촌	198/561(275/286)	상포계	-
3	원흥동 나무드머리	농촌	290/1220	두레/찬계	-
4	성석동 진밭마을	농촌	88/250(110/140)	상두계/두레	-
5	풍동 식골마을	농촌	2357/1011(558/453)	두레	-
6	성석동 진밭마을	농촌	88/250(110/140)	상두계/두레	15년 전
7	토당동 삼성당마을	농촌	-	있었다	10년 전
8	벽제동	농촌	890/2646(1401/1245)	있었다	20년 전
9	선유동	농촌	159/650(320/330)	있었다	25년 전
10	대화 · 법곳 · 뱀개 · 이산포	농촌	270/1080(510/570)	상두계/두레	24년 전
11	식사동 오룡마을	농촌	15/52(200/150)	있다	-
12	신원동 물구리마을	농촌	42/145(70/78)	있다	-
13	신원동 새말	농촌	22/80(34/46)	있었다	25년 전
14	신원동 한우물	농촌	40/140(65/75)	있다	-
15	산황동	농촌	76/451(224/227)	상두계	-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고양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거나 전승된 공동 노동 조직으로는 두레, 상두계(또는 상포계), 품앗이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1차적으로 공동 노동 조직의 종류와 소멸 시기만 제시해 줄 뿐 고양 지역의 공동 노동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가 없다.

2) 경기도박물관, 1998, 「경기도민속종합조사설문자료」, 『경기민속지 I』, 904쪽



법곳 도촌마을에서 본 노루뫼, 심학산 구산동 일대의 모습

셋째, 공동체 해체에 따른 주요 자료 제공자의 선정에서 주요 자료 제공자 1~2명이 조사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가 발생 하므로, 필자는 주요 자료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동일 문항에 대해 반복적 대답이 나오도록 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마을 현황, 두레가 입과 탈퇴, 두레조직, 두레회의, 두레노동, 호미씻이, 두레장비, 두레셈, 두레싸움, 계, 품앗이 등 11개 항목 80여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5일~1월 6일, 1월 8일~1월 10, 1월 11일~1월 13일 등 3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요 자료 제공자와의 면접 조사를 통하여 민속지를 작성하였지만, 여전히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지역의 한계로 나타날 수 있는 추출된 자료의 대표성 문제이다.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고양지역의 공동 노동 조직에 대한 일반성과 특이성을 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해체라는 고양지역이 안고 있는 제한된 여건으로 이를 충분히 밝혀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여러 주요 자료 제공자에 대한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자료 제공자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가 제시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고양지역의 공동 노동 조직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민속 조사가 계속 이루어 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구산2리라 부르기도 하는 장산마을(노루뫼)

2. 고양 지역의 공동 노동 조직과 협력체계 조사내용

1) 옛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양촌마을³⁾

(1) 마을개관

송포면은 고양군의 5개 읍(벽제읍, 신도읍, 원당읍, 일산읍, 지도읍), 1개 면(송포면)의 하나로 본래 송산면(松山面)으로 불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포면(巳浦面)의 대화(大化), 법곶(法串)의 2개리와 교하군(交河郡) 석곶면(石串面)의 동폐리(東牌里)와 와동면(瓦洞面)의 당리(塘里) 일부와 김포군 군내면(郡內面) 결포리(傑浦里) 일부를 병합하여 송산과 사포의 이름을 따서 송포면이라 하여 구산, 가좌, 덕이, 대화, 법곶의 5개 리를 포함하고 있었다. 5개 리 중에서 대화리는 고양군 사포면의 지역으로 한곳 또는 대화라 불렸다⁴⁾. 동쪽으로는 일산읍 주엽리, 일산리와, 서쪽으로는 법곶리, 가좌리와, 남쪽으로는 김포시와, 북쪽으로는 덕이리, 탄현리와 경계하고 있다. 예전부터 대화리는 주변의 넓은 벌판과 이 벌판 사이에 있는 야산에 촌락을 만들어 살아 전통적인 한국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1979년 이전부터 공단이 조성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 모습을 잃어갔다.

예전에는 대화리를 ‘뱀개’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불려진 데에는 두 가지 유래담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한강 연안에 제방을 쌓기 이전에 이 곳으로 한강물이 들어 왔다가 돌아 나갔는데 특히 홍수 때나 장마철이 되면 강원도에서부터 뱀이 떼를 지어 한강 물을 타고 이 곳으로 떠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뱀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곳 산들이 모두 빛밋하여 마치 뱀이 이리저리 흘러져서 기어다니는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뱀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화리는 현재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호에 부, 군, 면 폐합으로 모두 8개의 행정리 즉 대화 1리(김동마을, 양촌마을) · 대화 2리(내촌마을, 백암마을) · 대화 3리(장촌마을) · 대화 4리(성저마을) · 대화 5리(장성마을) · 대화 6리(멱절마을) · 대화 7리(김서마을) · 대화 8리(강서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김동, 양촌, 김서가 모두 대화 1리에 속했는데, 5. 16 군사쿠데타 이후 김동과 양촌을 대화 1리로, 김서를 대화 7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김동마을과 양촌마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동마을은 김씨들의 동족촌으로서 동쪽에 있는 김씨 마을을 김동리라 하고 서쪽에 있는 김씨의 마을을 김서라 하며 두 마을을 합쳐 김동이라 하였다. 양촌마을은 대화 1리의 대표적인 자연촌락으로서 양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라 하여 양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예부터 대화리에는 김녕 김씨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오래전부터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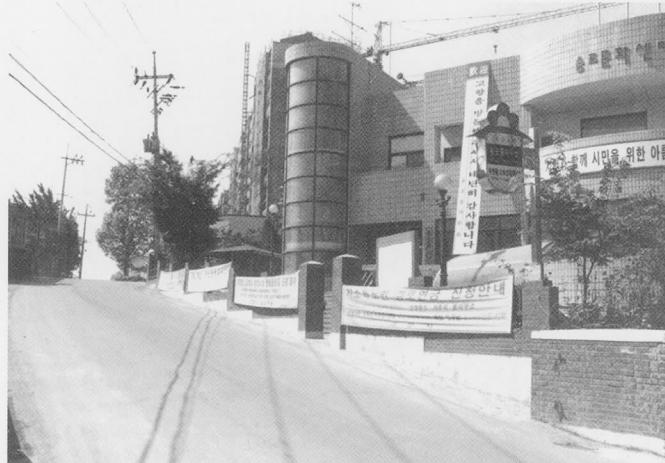
1989년 당시 『고양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화리에는 760가구, 3,027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조사지역인 대화 1리에는 60가구, 258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지역명	세대수	계	남	여	비고
대화 1리	60	258	128	130	
대화 2리	82	278	141	137	
대화 3리	75	322	172	150	
대화 4리	160	643	339	304	
대화 5리	190	734	369	365	
대화 6리	57	221	114	107	
대화 7리	60	261	135	126	
대화 8리	76	310	154	156	
대화리	760	3,027	1,552	1,475	

3)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양촌마을 두레의 민속지적 현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이는 김현규(남, 1942년생,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동 258-4번지)이다. 김현규씨는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양촌마을 755번지에서 태어나 25살이 될 때까지 양촌마을에 살았다. 그 후 결혼을 해서 김동마을 1654번지에서 4년을 살다가 29살 때에 서울로 이주하였다.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남.

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1985, 162~163쪽

제6장 생업과 공동생활



오늘날의 일산구 송포동사무소 (옛 송포면사무소)



대화초등학교, 대규모의 아파트 개발로 증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포 가좌동 중산마을의 도당나무 (은행나무 보호수)



뱀개길 (이곳은 뱀개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대화동 거리 모습

(2) 두레조사내용

① 두레조직

두레는 “들판에서 보면 마을마다 두레가 있었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마을을 단위로 하여 마을마다 두레가 조직되어 있었다. 대화리 전체로 보면 자연마을 단위가 8개 단위이므로 최소 두레가 8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레에 가입할 수 있는 성원 자격은 일정 나이로 정해져 있지 않고 남자가 변성기가 되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가입을 한다. 가입을 하지 않는 가구는 직장을 다니는 가구이거나 농토가 없는 가구들이다. 가입대상자는 대개 14세~60세 미만의 모든 성인 남자였고, 그 수는 마을 전체적으로 가구당 1명씩 가입을 하므로 많을 때는 50명까지, 적을 때는 30~40명까지 였다. 60세 이상이 되면 두레에서 자연스럽게 탈퇴를하게 되는데, 이들은 일꾼을 사서 농사일을 하거나 머슴을 고용하거나, 두레가 조직되었을 때 이들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짓는다.

두레는 좌상, 영좌, 소임, 조사, 재비꾼, 깃대재비, 일꾼 등으로 조직되었다. 좌상은 두레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마을의 연로한 분 중에서 농사 경험이 많은 50대 사람이 담당을 하였고, 영좌는 두레째 규율을 잡는 역할을 하였고, 소임은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고, 조사는 잔일이나 심부름꾼 역할을 담당하였다. 두레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바뀌는데, 실제로는 동일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계속해서 두레 일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영좌의 경우 나이가 들어 좌상감이라고 두레째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좌상으로 승격되는데, 좌상은 길어야 2년 정도 역할을 담당하였다. 영좌는 10년 동안이나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두레가 조직되는 시기는 모를 낸 뒤 대개 18일 뒤에 김매기가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 악기 등을 장만하고 사전 모임을 갖는다. 이 지역에서는 두레가 조직되는 것을 “두레 일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두레 공동노동

두레의 주된 노동 대상은 초벌(애벌) 김매기 · 두벌 김매기에 집중되어 있다. 초벌 김매기는 모내기가 끝나고 12일내지 18일 뒤에 호미로 맷고, 두벌 김매기는 애벌 뒤 14일 정도 지나서 손으로 훔쳤다. 초벌 김매기는 벼가 잘 자라도록 호미로 잡초를 끊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두벌 김매기는 호미를 쓰지 않고 손으로 잡초를 재차 뽑고 흙을 골라서 평평하게 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초벌부터 두벌까지 약 한달 여간의 김매기 시기가 요구되었다.

애벌 김매기 방식은 호미로 잡초 있는 흙 부위를 찍어 호미가 깊숙이 들어가면 그 호미를 원손으로 함께 떠서 흙과 함께 덮는 방식으로 매었고, 손 훔치기는 “못논 훔친다”라고 하는데 벼 주위에 있는 뽑은 잡초를 발로 밟고 양손으로 흙을 평평하게 고르는 방식으로 하였다. 사람에 따라서는 꼼꼼히 하지 않고 ‘건너뛰기’라고 하여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하였고, 또한 논의 상태에 따라 두레 일이 힘들기도 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힘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에 따라 논을 부르는 명칭이 달랐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구답논(마을 근처에 있는 상답논), 벌논(별판에 있는 논), 개석논(개울 옆에 있는 논), 밭폐논(밭에 딸려 있는 논) 등이다.

애벌김을 맬 때 쓰이는 호미는 밭호미보다 호미 날이 3배 크고 습베는 밭호미보다 반정도 작다. 이 두레용 호미를 “못 논호미”라고도 한다. 호미를 새로 만드는 것을 “친다”라고 하고, 날이 뭉개지면 뾰족하게 하는 것을 “베리는 것”이라고 하고, 낡은 날에다 새로 덧대 붙이는 것을 “날을 단다”라고 한다. 특히 날을 새로이 덧대 붙이는 것을 “조양내기”라고도 한다.

두레 일은 아침 5시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두레째가 모이는 신호는 북잡이가 동네를 돌면서 북을 치는 것으로 하였다. 일단 김매는 집으로 두레째들이 집결하면 일터로 향했는데, 일터로 나갈 때 영기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를 농기, 종기, 팽과리(상쇠, 부쇠), 제금, 징, 장구, 북, 호적(태평소), 두레째, 지게꾼 순으로 따랐다. 두레째가 작업장에 도착하면 좌상은 농기를 꽂아두고서 두레 일을 지시한다. 작업 방식은 나선형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두레째들이 일렬로 논에 들어가서 김을 매다가 다시 뒤쪽 김을 매지 않는 쪽으로 되돌아오면서 김을 매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덤배치기”라고도 한다. 작업 도중 두레꾼 중에서 선창을 하는 모개비에 따라 나머지 두레꾼들은 작업을 하면서 합창으로 이를 받아서 따라 부른다. 이때 불리는 노래로는 긴소리, 사두여, 양산도 등이 있다⁵⁾.

식사는 아침-새참-점심-새참-저녁 순으로 이루어졌다. 새참은 10시경에 나오고, 점심은 마을로 돌아가 식사를 한다. 대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오후 새참은 4시 30분 경에 나온다. 저녁은 마을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한바탕 놀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두레의 전체 하루 노동시간은 애벌과 두벌 모두 평균 12시간 정도 된다. 1일 평균 노동량은 1인당 1마지기(200평) 정도 였다고 한다. 저녁에 마을로 돌아올 때는 아침에 나갈 때와 마찬가지의 순서로 돌아온다.



법꽃동 : 서촌에서 바라다 본 구산·가좌동



법꽃동 : 동촌에서 본 이산포 마을의 모습

③ 두레놀이

마을의 두레 풍물은 영기, 농기, 종기, 팽과리(2), 제금(1), 징(1), 장구(1), 북(1), 호적(1)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농기는 광농꾼집에 보관을 하고, 악기는 김현규 댁에서 보관을 하였다.

영기는 세로 3자, 가로 4자 정도의 직삼각형 크기로 가운데 영(衿)자가 새겨져 있는 빨간색 기이다. 농기는 폭 3, 길이 20자 정도의 크기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른 형태이다. 장대 끝에는 평장목을 매달고 용두를 달고 농기에는 “제일천하지 대본(第一天下之大本)”이라는 한자가 쓰여 있고 왼쪽 옆에는 두레가 생긴 연도 즉 00년 0월 0일을 쓰고 오른쪽에는 마을 이름을 표기했다. 원래 이 마을에서 두레라고 하면, 김서마을, 김동마을, 양촌마을 세 마을을 통틀어 “구두레”가 1개 있다가 김동부락두레, 김서부락두레, 양촌부락두레 3개로 나눠지게 되었다. 이 중에서 김동두레가 제일 오래되었는데, 농기에는 “제일흥농지기(第一興農之旗)”라는 한자가 쓰여 있고 그 왼쪽 옆에는 “신미년(1931) 5월 3일”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에는 “김동부락”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김서부락 두레농기에는 “신농씨유업건농지기(神農氏遺業建農之旗)”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왼쪽 옆에는 “00년 0월 0일”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에는 “김서부락”이라는 글자가 써어 있다.

5) 논매는 소리에 대해서는 호미걸이 부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다.

농기 양옆 테두리에는 “지네발”이라고 하는 수술을 각각 달고 있으며, 농기 밑에는 빨간색, 파란색, 검정 색을 서로 덧대 연결한 3자 반 정도 크기의 역삼각형 수술을 달고 있다. 깃대는 전체 길이가 7m 정도 되는데, 밑에서 위로 5.6m 정도에 농기를 고정시키기 위해 주렴을 세줄 달아놓았다. 주렴을 묶기 위해 말뚝을 사용하는데, 말뚝은 밤나무로 만들었다. 그리고 농기를 고정시키기 위해 용두 바로 밑에 “신우대”라는 대나무로 만든 가로쇠를 걸친다. 깃대에 농기를 다는 것을 “옷 입힌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 깃대는 큰사랑이 있는 집 처마에 묶어 보관을 한다. 종기는 폭 3자 반, 길이 8자 정도의 크기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른 형태이다. 종기를 지지하는 깃대는 대나무로 하는데, 길이가 3m 정도 된다.

이 마을 두레의 큰 잔치인 호미걸이는 “호미씻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김을 매고 난 뒤 올해 농사가 끝났으니 내년을 대비하여 호미를 씻어 걸어둔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 호미걸이는 대체로 음력 7월 7일이나 7월 15일의 백중을 전후해서 열렸다. 이 호미걸이 행사는 농악을 중심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진행되는데, 이때의 풍물은 두레 공동 노동 과정에서의 풍물보다 훨씬 확대된 것으로 7~8 마을 두레가 참여를 한다. 호미걸이를 하기 위한 기구와 음식 준비는 마을 사람들 이 자발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도록 분담해서 마련을 하는데, 그 순서는 산상제(山上祭), 대동고사, 대동놀이, 유가제(遊街祭) 순으로 행해진다⁶⁾.



가좌마을, 대표적인 농촌마을이다.



원홍동 가시골 마을



신도시 개발 이전의 문촌마을 옛모습 (사진제공 : 정동일, 1990년)

6) 송포호미걸이의 전 과정은 고양문화원에서 제작한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고양시 호미걸이(1997)」 팜플렛 및 李庸中, 1986, 「구두레호미걸이」, 『행주얼』 제4호(30~32쪽)를 근거로 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사람들은 호미걸이 하는 날이 되면 기를 앞세우고 행진 농악인 길군악을 치면서 뒷산에 오른다. 도당나무에 도착하면 기잽이가 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 삼색 과일과 견어물로 제물을 진설하고 산상제를 지내게 된다. 산상제란 마을 주민 대표가 마을 수호신인 도당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마을 중심에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이 있는데, 이를 도당산(都堂山)이라 부른다. 이 도당산에는 큰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소나무를 도당나무로 정하고 그 앞에 제상을 차려 놓고 마을에서 제일 웃어른이자 두레째의 영좌가 의관을 정제하고 축문을 읽고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는데 이로써 호미걸이 행사가 시작된다. 산상제에는 이 마을 두레째만 참석하게 되며 두레째들은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해야 한다.

산상제를 지낸 뒤 두레째들이 마을로 돌아오면 놀이판에서는 대동고사를 위한 준비가 한참이다. 제물로는 시루떡과 돼지고기가 쓰인다. “입심 좋고 나이 많은 반 마나님” 같은 할머니가 제주가 되어 비손 하면 참석자 모두가 같이 비손하게 된다. 이 대동고사는 아낙네들이 마을의 풍년과 집안의 무사태평을 기원하기 위해서 지낸다.



주엽동 오마리 마을의 옛모습 (사진제공 : 정동일)

아낙네들의 고사가 끝나면 대동놀이가 시작되는데, 대동놀이는 초청된 이웃 두레째를 맞이하는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원래 김동(金東) · 김서(金西) · 양촌(陽村) 두레째는 이 부근 두레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구두레라고 한다. 두레째는 선후(先後)를 매우 존중하는 풍습이 있어 서로 만나게 되면 선배 두레째의 기(旗)에 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초청된 두레째는 재비를 올리면서 구두레의 기(旗)를 향해 온 절을 하면 구두레의 기(旗)는 반절로서 답례한다. 이를 “기절 받기” 또는 “기세배”라고 한다. 기절받기가 끝나면 그 해의 깃대잡이를 선별하는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 깃대잡이로 선발된다. 일단 깃대잡이로 선정되면 필목(疋木) 등을 선물로 받는다. 깃대잡이는 선물로 받은 필목을 풀어헤쳐 몸에 감으면서 춤을 추고, 깃대를 손바닥 어깨 등에 올려놓고 춤을 추기도 하고 기쁠기 등도 하는데, 이것을 “깃대재주부리기”라고 한다. 이 깃대잡이는 양촌마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기놀리기, 조사놀리기 등 온갖 재주를 부린다. 그런 다음 무등타기를 하고 명석을 짜서 만든 소가 등장하면서 호미걸이소리가 불리어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울려서 춤마당을 이루면서 흥을 돋구어 대동놀이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기쁠기가 끝나면 호미걸이의 소리가 시작되는데, 그 소리는 열 가지 가락으로 다른 지방의 소리와 비교해서 특색이 있다. 긴소리 · 사두여 · 양산도 · 방아타령 · 자진방아타령 · 놀놀이 · 자진놀놀이 · 널널닐 상사도야, 우후야 활활이, 몸돌여 가락으로 끝을 맺는다. 호미걸이에 나오는 농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긴소리〉

(모갑이-군말)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에에에

(두레꾼-대답) 예이

(모갑이-군말) 자, 오늘 날두 선선하구 김도 맬 만하구 이집이 떡살이 세가마, 서말, 석도, 서흘, 서작이니 옛날
옛적 젯날 젯적 떠꺼머리 총각적 헌 패래 고래적 나무 접시 맛있을 적에 노인네 허든 두레소리나
우럭우럭 해봅시다

(두레꾼-대답) 예이

(모갑이-선소리) 에하에 에헤에 에헤에하에 에하에헤에

허이 쌩아아아 이 이하요요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한패-받는소리) 에하에 에헤에 에헤에하에 에하에헤에

허이 쌩아아아 이 이하요요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모갑이 메기는 소리) 어떤 질질에 구름이 둉실 떴네

(다른패-받는소리) 에하에 에헤에 에헤에하에 에하에헤에

허이 쌩아아아 이 이하요요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모갑이-선소리) 춘면을 느짓 깨어 죽장을 반개하니 정화는 작작한데 나는 나비 머무는 듯 안류는 의의한데

성긴 내를 띄었어라

전창에 들관 술을 이삼배 먹은 후에 호탕하여 미친 홍을

(한패-받는소리) 에하에 에헤에 에헤에하에 에하에헤에

허이 쌩아아아 이 이하요요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사두여〉

(모갑이) 에 에헤에 에이에 에헤에리 사두여

(농군들) 에 에헤에 에이에 에헤에리 사두여

(모갑이) 사두여 소리가 또 넘어 갔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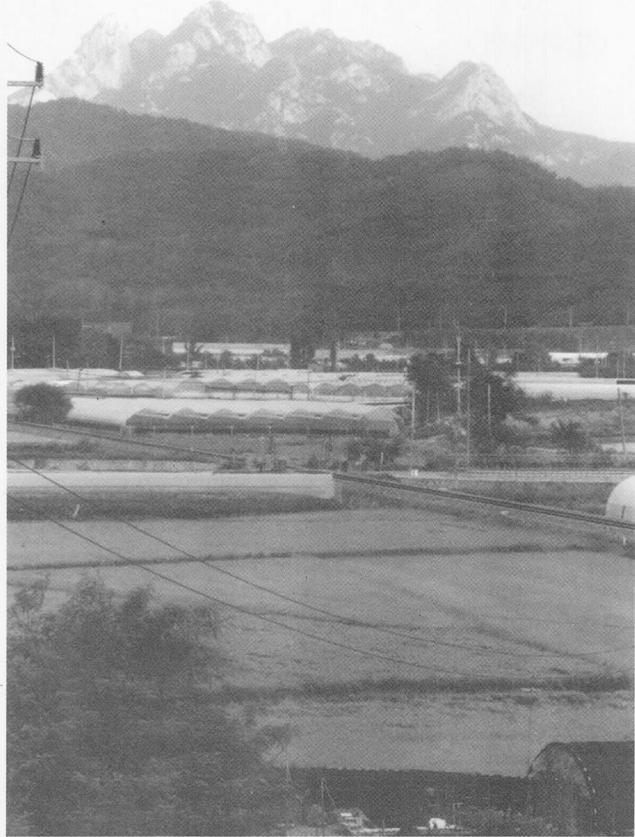
(농군들) 에 에헤에 에이에 에헤에리 사두여

(모갑이) 진일범주 연리거하여 유시요도 월중환을

어워라 어워라하니 아심수처 자망기를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로다

(농군들) 에 에헤에 에이에 에헤에리 사두여



선유동에서 본 불미지마을과 북한산, 노고산의 모습

〈양산도〉

(모갑이) 에 에이에 에에에 에에에 에헤리 다아하야

(농군들) 에 에이에 에에에 에에에 에헤리 다아하야

(모갑이) 양덕 맹산 흐르는 물은 감돌아든다 부벽루로다

(농군들) 에 에이에 에에에 에에에 에헤리 다아하야

(모갑이) 노세 노세 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이로다

(농군들) 에 에이에 에에에 에에에 에헤리 다아하야



신원동 물구리 마을의 모습

〈방아타령〉

(농군들) 애해 애해여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노니가 나누 나니가 네누 나니나 방아가 좋다

(모갑이) 어두어차 좋았구나 이 방아가 웬 방아냐 아랫녘 웃녘엔 경상 방아 여주 이천 자차 방아 통진 김포는
밀타리 방아 날고 장천 짧어도 혗 방아뿐이로구나

(농군들) 애해 애해여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화조밭에 학두루미 두 날개를 둉당 치며 짜른 목을 길게 늘여
뚜루루루루루 허고 아주나 감돌아든다

(모갑이) 용산 삼개 실버들나무 무엇을 주어서 길렸는지 우줄 줄줄이 춤만 춘다 좋구나 두엇구나 천안도
삼거리 능수나 버들 제멋에 겨워서 반춤을 추고 젊은 과수는 예루와 반복짐 싼다

(농군들) 애해 애해여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넓적질끈 소고 등은 우리나라 명창을 어디다 두고 어줄어줄이
걸렸느냐

(모갑이) 좋다 두었구나 충청도 하구두 계룡산 밑에 샛바구니를 옆에다 끼고 지신 캐는 저 처녀야 너 사는 집
이 어디드냐 나 사는 집은 저 산 넘어 실안개 속에 초당 삼간을 쑥 비켜놓고 초가 일간이 소녀의
집이로소이다

〈자진방아타령〉

(모갑이) 뜻다 뜻다 새 새소리 뜻다 에 애해요호 애해여호 애히여히 애해야하 어야라 어허야 애허리 뜻다

(농군들) 뜻다 뜻다 새 새소리 뜻다 에 애해요호 애해요호 애히여히 애해야하 어야라 어허야 애허리 뜻다

(모갑이) 뜻다 뜻다 정월이라 대보름날에 구머리 장군 긴코배기 액맥이 연이 뜻다

(농군들) 뜻다 뜻다 새 새소리 뜻다 에 애해요호 애해요호 애히여히 애해야하 어야라 어허야 애허리 뜻다



덕양구 효자동의 비닐하우스 주택, 산이 보이는 농촌 마을이다.

〈놀놀이〉

(모갑이)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모갑이) 놀놀이 소리는 엄청난 소릴세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모갑이) 심봉사의 거동을 보아라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모갑이) 굴관제복을 정히 하고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모갑이) 상두 뒷채를 더 덥썩 안고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놀 놀아

〈자진놀놀이〉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닐닐닐어리 저어허어야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닐닐닐어리 저어허어야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놀놀이 소래는 낭구꾼의 소랠세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닐닐닐어리 저어허어야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가세 가세 놀러를 가세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닐닐닐어리 저어허어야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뿩도 따고 임도 볼겸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닐닐닐어리 저어허어야



원당동 서삼릉 뒤쪽의 새말마을



삼송동 삼송전철역 부근 모습

〈닐닐닐 상사도야〉

(모갑이) 닐닐닐 상사도야
 (농군들) 닐닐닐 상사도야
 (모갑이) 상사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농군들) 닐닐닐 상사도야
 (모갑이) 어깨춤이 절로 나네
 (농군들) 닐닐닐 상사도야
 (모갑이) 한 소리는 질려 받고
 (농군들) 닐닐닐 상사도야

〈훨훨이〉

(모갑이) 우후야 훨훨
 (농군들) 우후야 훨훨
 (모갑이) 우후야 소리는 새 쫓는 소리
 (농군들) 우후야 훨훨
 (모갑이) 웃논에다간 찰벼를 심고
 (농군들) 우후야 훨훨
 (모갑이) 아랫논에는 메벼를 심어
 (농군들) 우후야 훨훨
 (모갑이) 수염이 빨개서 돼지찰이니
 (농군들) 우후야 훨훨

〈몸돌여〉

(모갑이) 에이어라 몸돌여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갑이) 일낙석양네 해 떨어지네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갑이) 석양세우 녹수풍에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갑이) 물소리는 가까워 오고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갑이) 뻥뻥 돌아라 땄리 몸돌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갑이) 에이어라 빙빙
 (농군들) 에이어라 빙빙

호미걸이에 나오는 농요의 가락은 높고 낮음이 분명하여 경쾌하며, 선소리와 후렴이 다른 구절이 많아 복잡하며, 소리의 종류가 많아 지루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호미걸이가 끝나면 두레페가 폐를 지어 풍물을 올리면서 집집마다 돌며 가내의 무사태평을 빌면 집주인이 나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온동리 집을 다 돌고 나면 이 호미걸이 놀이는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이러한 호미놀이 외에도 두레 놀이가 전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레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두레싸움의 발단은 이웃하고 있는 두레와 길이 좁은 논두둑에서 만났을 때 혹은 논두둑에 농기를 끊어 두어 지나가지 못했을 때 발생하기도 하며, 이 외에도 먼저 난 두레한테 나중난 두레가 절을 하지 않으면 싸움이 벌어졌다. 기세배는 나중 난 두레가 먼저 난 영좌두레한테 45도 정도의 각도로 기를 숙여서 세바퀴 돌면 그 담례로 기를 조금 숙여 한바퀴 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④ 두레회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두레회의는 크게 김매기 이전과 김매기 이후 회의로 구분되어 진다. 두레회의를 통해 두레를 조직하는 것을 “두레를 일으킨다”라고 한다. 김매기 이전 회의는 마을 내에서 유세 있는 사람이 두레회의를 갖자고 하면 점심을 먹고 마을에서 마당이 넓고 인심이 후한 부자집에서 두레페들만 모인다. 이때 논의되는 주된 회의 내용으로는 두레 역원을 매년 단위로 새로이 선출하고 망가진 재비를 새로이 마련하고, 김매기 순서를 결정하는 등이다. 모임시기는 모내기가 끝나고 10일 뒤이다. 모임은 마을내 광농꾼집(농사를 많이 짓는 집)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모임 때 재비를 구입하는데, 한바탕 풍물놀이가 행해진다. 김매기 이후 회의는 두별김이 끝날 무렵에 두레페의 조사 발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조사의 이와 같은 견의를 받은 두레페 영좌는 두레페 모두의 의견을 물은 다음 합의가 되면 두별김을 모두 마치고 전체 회의에 붙여 결정한다. 이 모임의 목적은 두레노동 종료에 따른 결산과 호미걸이의 택일이다. 이 회의를 “두레심”이라고도 한다. 모임장소는 사전회의와 마찬가지로 광농꾼집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의 강선마을



고봉산이 보이는 중산마을



중산마을 신도시 개발 이전의 옛모습 (사진제공 : 정동일, 1991년)



법곶동 이산포길 (이산포 I·C 부근)



일산2동 중산마을과 고봉산

두레 노동 종료에 따른 결산 방식은 총무가 수첩에 기입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한나절 일감인 지 하루 일감인지를 마지 기당 계산을 하여 돈으로 공임을 셈하였다. 당시 하루 노임이 쌀 1말을 팔면 세 사람 둘이 나왔다고 한다. 쌀 1가마가 10,000원 정도였다.

⑤ 두레의 소멸

양촌 마을 두레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대략 60여 년 전부터 행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62년 이후부터는 단절되었다가 1984년에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1994년에는 고양호미길이 전수, 보존회까지 발족하였다. 여타 지역의 두레와 마찬가지로, 이 마을의 두레도 농약과 제초 제가 생기면서 호미로 김매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두레가 소멸되게 되었다.

2) 옛일산읍 마두리 강촌마을⁷⁾

(1) 마을개관

일산읍은 고양군의 5개 읍(벽제읍, 신도읍, 원당읍, 일산읍, 지도읍), 1개 면(송포면)의 하나로 본래 중면(中面)이라 하여 장항(獐項), 산황(山黃), 풍동(楓洞), 마두(馬頭), 일산(一山), 백석(白石), 주엽(注葉)의 7개 동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김포군 군내면(郡內面)의 걸포리(桀浦里) 일부를 병합하여 장항, 산황, 풍동, 마두, 일산, 백석, 주엽의 7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는데, 1980년 12월 1일에 일산읍으로 승격되었다⁸⁾. 동쪽으로는 원당읍과 지도면, 남쪽으로는 한강 건너 김포군 고촌면, 서쪽으로는 김포읍, 북쪽으로는 송포면과 벽제면에 닿아 있다.

마두리는 마을 뒤에 있는 정발산의 모양이 말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말머리 또는 마두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모두 5개 행정리 즉 1리(낙민) · 2리(강촌) · 3리(설촌) · 4리(냉촌) · 5리(모범마을)를 병합하여 마두리라 하였다. 현재 마두리의 5개 자연마을은 모두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현재의 마을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조사지에 해당하는 마두리 강촌마을은 이 마을에 강씨 성을 가진 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강촌마을은 본관이 진주인 강씨들이 많이 모여 산 집성촌락으로써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것이 약 300여 년 정도 되었다고 하며 모두 통계공의 자손들이라고 한다.

1989년 당시 『고양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마두리에는 772가구, 2,905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조사지역인 강촌마을에는 208가구, 735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지역명	세대수	계	남	여	비고
마두 1리	70	309	154	155	
마두 2리	208	735	393	342	
마두 3리	168	666	348	318	
마두 4리	136	484	246	238	
마두 5리	190	711	361	350	
마두리	772	2,905	1,502	1,403	

7) 고양군 일산읍 마두리 강촌마을 두레의 민속지적 현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이는 박영봉(남, 1922년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251-13호)이다.
박영봉씨는 경기도 고양군 중면 마두리 강촌마을에서 태어났다. 현재 경기도무형문화재 태평소 보유자로 활동중이다.

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1985, 170쪽

(2) 조사 내용

① 두레조직

두레는 마을 단위로 조직되었는데 마두리 전체에 두레가 5개 있었다. 이 마을의 두레 조직 방식은 1집 1호씩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청·장년층이 여러 있을 경우에는 2~3명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한 관계로 마을 전체적으로 평균 30명 정도로 두레가 조직되었으며, 많을 경우에는 50명까지 조직되기도 하였다. 두레에 가입할 수 있는 평균 연령은 15세 이상이다.

근래의 두레는 영좌와 총무로 조직되어 있었다. 영좌는 두레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농사 경험이 많은 50대 이상의 사람이 담당을 하였다. 총무는 “서기”라고도 불렸는데, 영좌를 보좌하면서 두레꾼들의 출석과 회계를 맡아보는 역할을 하였다. 임기는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어 매년 새로이 선출되었다. 이 마을 두레는 여타 마을 두레와 마찬가지로 모내기가 끝나고 김매기가 시작되는 직전 이장집에 모여 두레가 조직되었다.

② 두레 공동노동

두레의 주노동대상은 김매기였다. 김매기는 초벌(애벌)·두벌·세벌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애벌과 두벌 김매기에 노동이 집중되었다. 초벌 김매기는 모심고 한달 뒤에 호미로 매었는데, 호미로 잡초가 있는 흙을 양손으로 떠서 덮어버리는 방식이었다. 두벌 김매기는 대개 보름 뒤에 매었는 바, 물이 없으면 초벌이 끝나고 바로 하고, 비교적 물이 충분하면 보름 뒤에 하였다. 두벌 김매기는 호미로 하지 않고 손으로 흙을 골라서 평평하게 펴 나갔다. 세벌 김매기도 두벌 끝나고 바로 하였는데, 손으로 훔치는 방식이었다. 이를 “손 훔친다”고도 하였다. 사실상 피나 뽑는 일어있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초벌부터 세벌까지 약 한달 여간의 김매기 시기가 요구되는데, 초벌이 15일, 두벌과 세벌이 15일 정도 걸린다. 작업순서는 모내기를 끝낸 순서부터 잡아나갔다.

김매기에 있어 호미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논매는 호미” 또는 “논호미”라고 불렀다. 이 두레용 호미는 밭호미보다 크기가 2배 정도 컼으며, 호미날 길이도 20cm 이상이나 되었다. 논호미가 둣아지면, 호미 구입처로는 일산초등학교 옆에 대장간 혹은 5일장을 통해서 구입을 하였다고 한다.

작업시간은 아침 5시 경부터 저녁 7시 경까지 하였으며, 모이는 방식은 동네 가운데서 징을 치고 모였다. 일터로 나갈 때는 무엇보다 농상기(농기)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를 풍물패가 따랐다. 일터에 도착할 때까지 풍물패는 길군악이라는 행진주악을 두드리는데, 12채가락까지 두드리기도 하였다.

두레패가 일터에 도착하면 농상기를 논둑에 꽂아 세워 놓고 농상기 아래서 한바탕 풍물을 잡은 후에 일을 시작한다. 고양지역에서는 작업방식이 공통으로 나타나는데, 일렬로 김매기 작업을 해 나가다가 뒤쪽 김을 매지 않은 쪽으로 되돌아서 김을 매어 나가는 나선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매기 작업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소리를 매기는 사람이 선창을 하면 나머지 두레꾼들이 받아서 따라 부른다. 이때 불리는 농요로는 방아타령, 놀놀이타령, 상사도야, 새쫓는 우야우, 양산도 소리 등이다.

식사는 아침참-새참-점심참-새참-저녁 순으로 이루어진다. 아침은 4시에 일어나서 각자의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김매는 집에 모여 5시에 일터로 나간다. 새참은 10시 경에 나오고, 새참을 먹고 난 후에 한바탕 풍물을 치면서 휴식을 갖고 바로 이어서 김매기 작업에 들어간다. 점심은 마을로 돌아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논에서 바로 해결을 한다. 오후 4시 경에 새참이 나오고, 저녁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해결을 한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생활이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두레의 하루 총노동 시간은 초벌, 두벌, 세벌 모두 평균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된다. 이 중에서 실제 작업시간은 약 8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은 식사와 유흥의 시간이었다. 두레 논일 평균은 1일 1인당 1마지기 정도였다고 한다. 일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갈 때는 아침에 나올 때와 마찬가지의 순서로 농상기를 앞세우고 길군악 12채 가락을 울리면서 돌아온다.

③ 두레놀이

두레풍물은 농상기, 팽과리(상쇠, 부쇠), 제금(1명), 징(1명), 장구(1명), 북(1명), 소고 또는 범고, 두레꾼 등으로 편성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농기를 “농상기”라 불렸으며, 농상기를 들려면 힘이 센 장정이어야 한다. 농상기와 악기는 따로 보관 장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이장집에 보관을 하였다.

이 마을의 농상기는 폭 2자, 길이 20자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기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른 형태이다. 장대 끝에는 평장목을 달았고, 장대 허리에 기줄을 세가닥 매달아 말뚝으로 고정할 수 있게 하였다. 농상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 옆에는 두레가 발생한 연대를 쓰고 바로 밑에 마을 이름을 표기하였다. 농기 세로면에는 삼각형 모양의 수술이 달려 있는데, 이를 “지네발”이라고 한다. 농기 밑에는 삼각형 모양의 수술이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천을 각각 연결하여 달려 있다. 마을에 보관되어 오던 농상기가 언제 없어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두레놀이인 호미씻기는 김매기가 끝나고 편안한 날을 잡아서 했는데, 음식 준비는 잘 사는 사람들이 서로 추렴을 하여 장만했다. 호미씻기는 마을 정자 밑에 모여서 두레품값 정리도 겸해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함께 즐겼다.

이러한 두레놀이와는 달리, 두레싸움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싸움의 발단은 여타 마을과 마찬가지로 이웃 두레와 일터에서 조우하게 되면 서로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데서 기인한다. 먼저 난 선생두레를 만나게 되면 나중에 난 두레가 선생두레에게 절을 하는데, 이를 “기세배”라고 한다. 기세배는 나중 두레가 선생 두레에게 45도 각도로 기를 숙이고 한바퀴 돌면 그 답례로 선생두레가 반절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세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편 기를 뺏는 싸움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상 싸움이 끝나면 그만이었으니, 크게 다치더라도 어떤 앙심을 품는다든지 고발사태로 까지 가는 일은 전혀 없었다.

④ 두레회의

이 마을에서 이루어진 두레와 관련된 회의는 모내기가 끝나고 김매기가 시작되기 전에 김매는 순서라든가 두레패 역원을 선출한다든가 하기 위해 김매기 전에 두레회의를 갖게 되는 회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초벌, 두벌, 세벌 김매기가 끝나고 두레노동종료에 따른 품값 결산과 호미씻이날을 정하기 위해서 갖는 두레회의가 있다. 모임은 마을 앞에 있는 정자나 무 밑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두레 일이 끝나고 결산은 서기가 담당을 하는데, 1마지기를 기준으로 하여 두레패의 공임을 계산한다. 결산은 호미씻이 놀이가 벌어지기 전에 간단히 셈을 보았다.

⑤ 두레의 소멸

이 마을의 두레는 여타 지역의 두레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이 벌발하면서 중단되었다가 54년에 다시 조직되어 1980년 대 초반까지 존속하였다. 두레가 없어진 주된 이유는 경운기와 제초제의 도입으로 급속히 사라지게 되었다.

3) 옛고양군 송포면 가좌리 음송마을⁹⁾

(1) 마을개관

가좌리는 본래 고양군 송포면의 지역으로서 가제월 또는 가좌동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교하군 석곶면 동패리 일부를 병합하여 모두 5개 행정리 즉 1리(중산마을) · 2리(율리마을) · 3리(음송마을) · 4리(두신마을) · 5리(당음마을)로 구성되었다¹⁰⁾. 가좌리는 북서쪽으로는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와 경계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덕이리, 남쪽으로는 대화리와 서쪽으로는 구산리, 법곶리와 경계하고 있다.



일산구 가좌동 음송마을

9) 고양군 송포면 가좌리 음송마을 두레의 민속지적 현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이는 이영극(남, 1938년생,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372번지)과 이병순(남, 1933년생,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91-1번지)이다.

1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1985, 170쪽



탄현마을의 아파트 단지



탄현마을의 카페거리



탄현마을과 덕이동 일대의 개발전 모습 (1991년, 사진제공 : 정동일)

가좌리라는 지명과 관련해서 현재 세 가지 유래가 전해지고 있는데, 첫번째로는 예전에 가자울에 가재우물이 있었는데, 가재들이 살 정도로 그 우물물이 맑고 시원해서 이 가재우물에서 지명이 나왔다고 한다. 두번째로는 가자울에 개울이 여러 있었는데, 이 개울에 가재들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현재의 가좌 5리에서 예전에는 가재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가좌리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특히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가좌 3리는 자연촌락 명칭으로서 음송(음송굴)새말, 고새기(신새말)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음송마을이라는 지명은 예로부터 고을이 깊고 산이 많은데 산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항상 그늘이 지므로 “음”자와 “송”자를 써서 음송마을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가좌 3리 마을 주민 대부분은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여주 이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1989년 당시 『고양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좌리에는 315가구의 1,19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조사지역인 음송마을에는 42가구의 173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지역명	세대수	계	남	여	비고
가좌1리	83	285	133	152	
가좌2리	83	339	175	164	
가좌3리	42	173	87	86	
가좌4리	54	197	92	105	
가좌5리	53	196	104	92	
가좌리	315	1,190	591	599	

(2) 조사내용

① 두례

가. 두례조직

두레는 자연마을 단위로 1개씩 조직되어 있어 가좌리 전체로는 두레가 5개 있었다. 두레에 가입할 수 있는 성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반일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부터 온 일을 할 수 있는 55세~56세 이하의 모든 성인 남자였고, 그 숫자는 가구당 일을 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마을 전체적으로 평균 20~30명, 많으면 50명 정도까지였다. 이처럼 두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적으로 반일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부터 온 일을 할 수 있는 장년층까지이다. 여기서 “반일꾼”은 반일을 한다하여 일걸은 명칭이며, 온 일을 한다고 하여 “온일꾼”이라고 불렀다. 반일꾼에 해당하는 15세 정도의 청년층을 두레에 가입시킨 이유는 두레패에 끌고 다니면서 농사일을 온전히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두레 조직의 역원은 영좌와 총무, 조사가 있었다. 영좌는 두레를 대표하는 총책임자로서 마을의 연로한 분 중에서 농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였고, 총무는 두레꾼들의 출석과 두레의 회계를 맡아 보며 영좌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고, 조사는 영좌와 총무를 보좌하면서 연락병이자 심부름꾼 역할을 담당하였다. 임기는 1년 단위로 정해졌다. 두레가 조직되는 시기는 음력 6월경 논매기가 끝나고 보름 후에 마을 이장에 해당하는 구장이 통문을 돌려 마을내의 산 마루터기에서 회의를 열어 두레를 짜고 역원도 선출하고 두레 상호간에 재비손을 맞추기도 한다.

나. 두례 공동노동

두레의 공동노동은 초벌(애벌)·두벌·세벌 중에서 특히 애벌과 두벌 김매기에 집중되었다. 초벌 김매기는 대개 모내기 끝나고 20여일이나 한달여 뒤인 6월 중순에 호미로 맸고, 두벌 김매기는 초벌 뒤 10일 정도 지나서 손으로, 세벌 김매기는 그 뒤 10일 지나서 손으로 훔쳤다. 이는 천수답의 물사정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그것은 모내기를 빨리 했느냐 늦게 했느냐에 따라 김매기 순서 뿐 아니라 김매기도 자연스럽게 조정되게 되었다. 초벌부터 세벌까지 약 한달여간의 김매기 시기가 요구되는데, 애벌이 보름 정도, 두벌과 세벌이 보름 정도 요구되므로 이 기간은 무척 힘든 시기라고 한다.

호미매기는 호미로 찍어서 잡초가 있는 흙을 양손으로 떠서 덮는 방식으로 매었는데, 잡초가 많으면 촘촘히 매어나가고 잡초가 적으면 드문드문 매어나갔다. 손 훔치기는 양손을 돌려 벼포기 주위의 풀을 뜯으면서 뽑은 풀을 밭로 밟고 흙으로 묻는 방식으로 하였다. 참고로 이 마을의 논에 대한 명칭은 골논(골짜기에 있는 논), 옥답(집 가까이에 있는 문전옥답), 박답(척박한 땅에 있는 논) 등으로 불려졌다.

김을 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호미인데, 이 두레용 호미를 “논호미”라고 해서 밭호미보다 습베가 2배 정도 컸다고 한다. 현재는 두레용 호미가 마을에 전해지지 않는 상태이다. 호미날이 닳아지면, 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에 있는 “복돌이 대장간”에서 호미날을 수리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버리고 새로이 구입을 하여 사용하였다. 당시 장터에서 “복돌이 대장간(성이 김씨이고 이름이 복돌)”에서 만든 호미를 최고로 친다. 왜냐하면 호미날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따라 김맬 때 힘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두레 공동노동을 시작하는 방법은 아침 5시 경 김매는 집 마당에 두레패들이 집결을 하여 대오를 정비하고 일터로 나가는데, 집합 신호로는 두레패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징을 치는 것으로 하였다. 일단 집합하면 한바탕 풍물을 잡고 나서 일터로 향한다. 일터로 나갈 때 농기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를 두레풍물패가 따랐다. 일터에 도착할 때까지 풍물패는 강

렬하고 전투적인 독특한 리듬인 “길군악”이라는 행진주악(行進奏樂)을 두드리는데, 보통 7채가락까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4채가락까지 두드린다.

두레페가 작업장에 도착하면 영좌는 농기를 논두둑에 꽂아 세워 놓고 농기 아래서 한바탕 풍물을 잡고서 두레노동을 시작한다. 김을 매 나가는 방식은 일렬로 해 나가거나 타원형으로 돌아서 에워싸는 방식으로 하기 보다는 일렬로 논에서 한쪽 방향으로 김을 매어 나가다가 다시 뒤쪽 김을 매지 않은 쪽으로 되돌아서 김을 매는 방식으로 해 나간다. 다시 말해, 원쪽부터 김을 매고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으로 이동해나가는 방식이다. 작업 도중 두레꾼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선소리꾼이 선창자로 지정되어 먼저 선창을 해서 먹이면 나머지 두레꾼들은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다같이 합창으로 받아서 따라 부른다. 이때 불리는 노래로는 방아타령, 양산도, 상사소리, 놀놀이 소리 등이다.

두레꾼들은 이렇듯 일하며 노래하며 일하다가 오전 9시 경에 새참이 나오면 참을 먹고, 다시 일한 후에 점심을 든다. 점심은 마을로 돌아가서 하는데, 점심 후 1시간 정도 휴식을 갖고 다시 들로 나와 일을 한다. 오후 3시 경에 새참이 나오며 저녁은 마을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한바탕 놀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하루의 총 노동 시간은 초벌의 경우에는 14시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 노동시간은 약 8시간이고, 나머지 6시간은 공동식사, 공동휴식 시간이었다. 두레 논일의 분량은 1일 평균 1인당 1마지기(200평) 정도였다. 마을 전체로는 한달 정도에 걸쳐 750마지기를 정도를 처리했다고 한다. 두레페들이 하루의 두레공동노동을 끝내고 마을로 돌아올 때에는 아침에 나갈 때와 마찬가지의 순서로 농기를 앞세우고 길군악 가락의 풍물을 치면서 돌아온다.

다. 두레놀이

마을 두레 풍물은 농기, 팽과리, 제금, 징, 장구, 북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농기는 마을에서 제일 힘이 센 장정이 들고 갔다. 농기와 악기는 큰 사랑이 있는 집에 모두 보관을 하였는데, 농기는 접어서 사랑채 벽장에 보관을 하였다.

농기는 폭 2자 반, 길이 25자 정도의 크기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른 형태였다. 장대 끝에는 평장목을 매달고 용두를 달고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한자로 쓰고 그 옆에는 두레가 생긴 연도 즉 단기 연도를 쓰고 바로 밑에 마을 이름 등을 표기한다. 농기 양옆 테두리에는 “지네빌”이라고 하는 수술을 각각 10개 정도 달아서 바람에 나부낄 때 그 모습이 장관이라고 하였다. 농기 밑에는 뺨강색, 파랑색, 검정색을 서로 덧대 연결한 3자 반 정도 크기의 역삼각형 수술을 달고 있다. 장대 중간에는 논두둑에 말뚝으로 고정하기 위해 세 가닥 줄을 달아 놓았다. 이 장대는 큰 사랑이 있는 집 처마에 매달아 보관하였다. 이 농기는 두레가 소멸하고 난 뒤 없어졌다.

두레의 큰 잔치인 호미씻이는 김매기가 끝나고 7월 중 편안한 날을 잡아서 하는데, 두레품을 계산하고 나서 남은 돈과 찬조금을 받아서 준비를 하였다. 호미씻이가 벌어지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산 마루터기에 나와서 함께 즐겼다고 한다.

한편, 두레싸움은 인근 두신두레와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싸움의 발단은 대개 두레일을 하다 보면 멀리 있는 다른 논에 일하러 갔다가 마주치면 상호간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벌어졌다. 상대편 두레를 만났을 때 “조사두레”가 “영좌두레”를 보고 기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을 “기세배”라고 한다. 기세배는 조사기가 영좌기에 45도 정도의 각도로 기를 숙여서 한바퀴 돌면 영좌기가 그 답례로 기를 조금 숙여 한바퀴 돈다. 이때 논둑에서 두레가 서로 만나면 12채까지 풍물을 쳤다고 한다.

라. 두레회의

두레와 관련된 회의는 김매기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누어진다. 사전에 두레를 조직하는 모임을 일반적으로 “두레잔다”라고 부른다. 이 사전 모임은 두레 역원을 새로이 선출하고 두레페를 조직하고, 김 매는 순서를 결정하는 등 두레노동의 조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모임시기는 대개 모내기가 끝나고 김매기가 시작되는 전인 6월 경이었다. 그러나 물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때라고 하기는 어렵다. 모임은 마을 앞에 있는 산 두루터기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사후에 이루어지는 회의는 대개 7월 경에 이루어졌는데, “호미씻는 날”로 표현되고 있다. 이 모임의 목적은 두레 노동의 결산과 김매기 종료에 따른 한바탕 놀음에 있었다. 모임장소는 김매기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마을 앞산 두루터기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놀이판이 곁들여졌던 관계로 축제형식이었다.

두레 노동 종료에 따른 결산 방식은 총무가 수첩에 기입한 것을 근거로 하여 마지막에 계산을 하여 돈으로 공임을 챙하였다. 당시 하루 노임이 1마지기 기준으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었다. 농사가 적은 사람은 두레를 통해서 돈을 벌곤 하였다.

마. 두레의 소멸

이 마을의 두레는 한국전쟁이 빨발하면서 중단되었다가 54년에 다시 조직되어 1980년대 초반까지 존속하였다. 두레가 소멸된 주된 이유는 경운기가 나와 논갈이를 대신하고 농약이 김매기를 대체하자 사라졌다고 한다.

② 기타 공동협력조직

두레 이외에도 품앗이라는 공동노동도 있었다. 품앗이는 품을 주고 받는 노동관행으로서 ‘품’은 노동력을 의미하고 ‘앗’은 되갚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마을에서 품앗이는 대개 노인들끼리 농사일을 짓기 위해서 품앗이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품앗이의 작업 대상은 모심기와 벼베기에 주로 치중되어 있었다.

기타 마을의 공식적인 조직으로는 상포계가 있었는데, 50년대에 없어지고 그 대신 상조계라고 하는 계조직이 형성되었다. 상조계는 마을 내 한 집이 상을 당하면 상을 당한 집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 각자가 자기가 먹을 양만큼의 쌀을 직접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생활수준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계조직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도 90년도에 들어서 없어지고, 지금은 “유학계”라고 해서 쌀은 가져가지 않고 대신 돈으로 부조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유학계의 전체회원은 30여명 정도 되고, 임원으로는 회장, 유사, 총무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한번씩 결산을 보고 있다.

송포에는 1950년대 말경까지 ‘동막’이라는 협동노동체가 있었다. 수리시설이 필요할 때 마을의 노동력을 모아 둑을 쌓아 물을 관리하며 다음해 농사에 대비하는 조직이었다. 송포동의 동장을 역임했던 이영극씨는 동막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송포지역 내에는 1959년까지 동(桐)막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집결하는 조직체가 있었다.

송포지역이 고양농민 개량조합의 수리시설이 되기 이전, 다음 해의 농업 용수를 확보해 두기 위하여 역사를 하는 것이다. 지금의 한산부락 앞에는 한산동막이, 지금의 농수산물센터 부근에는 희도교동막이, 그리고 대화와 가좌 사이에 고리포동막이, 음송 앞의 음송동막이, 두신 부락 앞의 두신동막이, 그리고 올리부락에서 주산리 뵙뿌리부락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대장구지동막이 등이 있었다.

이 작업은 대략 추수를 끝낼 무렵인 음력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하는데 해당 지역내의 경작자들이 섬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나오거나, 짚단 7~8못씩 가지고 나와 이영을 엮어 만든 섬에 흙을 담아 둑과 둑 사이를 막는다. 이영은 물이 많이 담수된 후 바람이 불어 수면에 물결이 일어나 도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쳐놓는 것이다. 이 날은 안·밖의 대동이 총동원되는데 모두 사명의식을 갖고 단합된 마음으로 하는 일종의 협동체적인 사업이었다.

4) 옛 고양군 벽제읍 성석리 진밭마을

(1) 마을개관

벽제읍은 고양군의 5개 읍(벽제읍, 신도읍, 원당읍, 일산읍, 지도읍), 1개 면(송포면)의 하나로 사리대면(沙里大面)이라 하여 읍내(邑內), 대자(大慈), 관산(官山), 내유(奈遊), 지영(芝英), 설문(雪門), 사리현(沙里峴), 문봉(文峯)의 8개 마을을 관할하고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이면(九耳面)의 성동과 신혈면(神穴面)의 벽제(碧蹄), 선유(仙遊)의 2개 동리와 파주군 조리면(條里面)의 죽원리(竹院里) 일부와 교하군(交河郡) 지석면(支石面)의 상지석리(上支石里) 일부를 병합하여 벽제역(碧蹄驛)의 이름을 따서 벽제면이라 하고, 관산·벽제·고양·대자·내유·사리현·지영·설문·문봉·성석 등 11개 마을로 개편 관할되었는데, 1980년 12월 1일로 읍으로 승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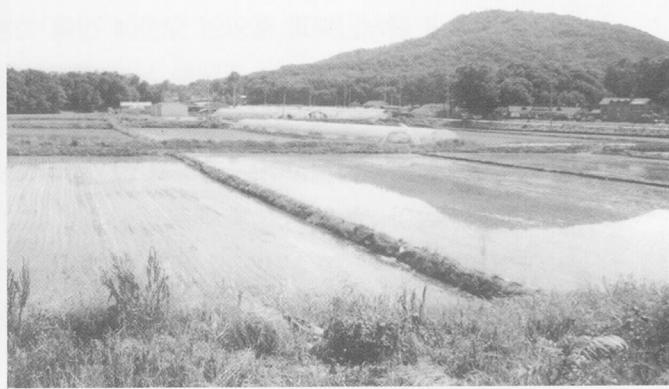
성석리는 본래 고양군 구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성동과 교하군 지석면의 상지석리 일부를 병합하여 모두 4개 행정리로 구성되었다¹¹⁾.

성석리라는 지명은 성석리가 고봉산에 의해 둘러 싸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산으로 병풍을 쳐놓은 듯하고, 또한 마치 성

1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1985, 158~162쪽



진밭마을 두레페 보존회관



진밭마을 앞의 논과 고봉산 전경

을 쌓아 놓은 듯한 곳이라 하여 성(城)자를 붙였고, 또 이곳에는 이무기를 꼼짝 못하게 했다는 두꺼비바위[두껍바위]가 있다 하여 이 전설 때문에 석(石)을 붙여 ‘성석리’라 하였다.

특히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성석 1리에는 자연촌락 명칭으로서 사당골, 진밭, 오래골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진밭마을은 이전(泥田)마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전이란 한자명을 풀이하면 진흙밭이므로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이 외에도 이곳은 예전부터 김씨가 많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원래 김밭으로 불리워 졌다가 음이 변하여 진밭이 되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1989년 당시 『고양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석리에는 509가구에 1,974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조사지역인 진밭마을에는 87가구에 38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지역명	세대수	계	남	여	비고
성석 1리	87	380	-	-	통계연보 통계수치 오류
성석 2리	59	260	134	126	-
성석 3리	268	937	486	451	
성석 4리	95	397	197	200	
성석리	509	1,974	-	-	

(2) 조사내용¹²⁾

진밭두레페 농악대는 영농 작업시에 행하는 본 농악(本農樂)으로서 12마당 놀이를 갖추고 있으며, 호미씻이 때에 풍년 놀이로서 행하는 8마당 놀이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농악의 가락으로는 1채 가락에서부터 12채 가락까지, 또한 각종 변형 가락을 갖추고 있다.

농악의 가락과 진행을 이끄는 것은 상쇠로서, 상쇠가 선도하는 가락에는 길군악(행진곡) · 만장단 · 덩덕궁이 · 다드래기 · 굿거리 · 중머리 · 자진머리 · 휘머리 · 장풍장 · 춤장단이 있다. 농악 가락의 장단은 한 가락에 들어가는 징의 ‘채’ 數에 따라 숫자를 붙여서 표시하는데 채수가 올라갈수록 박자가 빨라진다. 오래된 상쇠들은 보통 12채까지 쳤다고 한다. 그 중 1 · 2 · 3채 가락은 춤가락이며 자진모리 가락에서 울동을 한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본농악(本農樂)에는 소(牛)와 농기를 사용했으나 점차 사라져 버렸고, 현재는 춤과 율동(律動)만이 남아 있다.

본 농악(혹은 영농(營農)놀이, 농사놀이)은 봄에 가래질 할 때, 못자리 벽씨 뿌릴 때, 모를 찔 때, 모내기할 때 콩을 심을 때, 김을 맬 때, 퇴비를 만들 때, 가마를 짤 때, 벼를 벨 때, 탈곡을 할 때 행하는 농악(農樂)이다. 풍년놀이는 추수가 끝난 후 호미씻이 때에 행하는 것으로서 그 놀이 유형(類型)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있다.

12) 진밭 두레에 대한 내용은 고양문화원에서 발간한 「제1회 고양진밭두레발표회」 (2000)이라는 팜플렛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 ① 오방진(명석감기와 풀기) : 농악대가 놀이판의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돌아다니다가, 상쇠를 한가운데 놓고 원을 그리며 겹겹이 돋 후 다시 원을 푸는 것을 몇 차례 되풀이한다. 마지막에는 중앙(中央)에 진(陳)을 치는데, 이로써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에 진을 치는 꼴이 되는 것이다.
- ② 군사놀이 : 농악대가 3열 종대로 서서 행진하다가 그 앞 열(列)로 행진하면서 좌우로 1보로 대열을 변형, 그 후 3방향, 6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행진하다가 다시 본대열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당상벽구놀이 : 풍물잡이들 중에서 범고(벽구)잡이를 상대로 범고놀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사통백이놀이 : 농악대가 동서로 나뉘어서 범고잡이와 그 밖의 풍물잡이들이 서로 엇갈려 지나가다가, 두 개의 원형을 만들어 사방으로 돌면서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 ⑤ 좌우치기놀이 : 범고잡이와 그 밖의 풍물잡이들이 각각 1열로 행진하면서 좌우로 1보씩 움직이다가 6체 가락에 맞추어 노는 것을 말한다.
- ⑥ 거상가락놀이 : 거상가락이란 느린 가락으로서 농악대에 참가하지 않은 남녀노소가 모두 이 가락에 맞춰 춤추고 노는 것을 말한다.
- ⑦ 3체가락에 춤추기 : 거상가락에 흥이 나면 장고잡이와 날라리잡이가 3체 가락을 치고 상쇠가 선소리를 선창하면 모두가 그것을 받아 복창하면서 풍년가를 부른다. 노래와 함께 흥겨운 춤을 추면서 한바탕 어울려진다.
- ⑧ 열두발 상모놀이 : 마지막 마당씻기에 해당하는 놀이판으로 채상잡이(범고잡이 중에서 마지막 사람)가 열두 발이나 되는 부전지를 뿐인 상모를 서서 돌리거나 앉아서 돌리거나 누워서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8마당 놀이가 전밭두레째 농악대가 벌이는 풍년놀이 한마당이다.

3. 고양지역 공동노동조직의 성격과 특징

1) 고양 지역 공동노동조직의 성격과 특징

(1) 두레 명칭

두레에 대한 명칭은 지방에 따라 “공굴, 궁굴이, 제리, 자리, 조리, 돌계, 돌개김, 동네논매기, 항두품어리”라 불리기도 하고 혹은 “농사(農社), 농계(農契), 농청(農廳), 계청(契廳), 거사, 목청(牧廳), 공청(公廳), 농기(農旗), 농악(農樂)”¹³⁾ 등으로 불리는 등 지역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양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두레’라 하였으며, 이러한 두레를 조직하는 일을 가리켜 “두레를 일으킨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양지역에서는 ‘두레’라는 명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두레를 일으키는 목적도 모내기나 다른 농업 공동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을 매기 위하여 두레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두레 조직

두레는 원칙적으로 ‘행정 단위로서의 동리’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자연마을 단위로 1개씩 조직되었다. 두레에 가입할 수 있는 성원 자격은 마을 내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내의 15세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모든 성인 남자로서 가구당 일을 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다. 두레에의 가입이 강제적이지 않고 임의적인 것처럼 두레에의 탈퇴도 일정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두레는 원

13) 신용하, 1985, 「두레 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공동체이론』, 212쪽

직적으로 성인 남자 중에서 청년층과 장년층으로만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두레 성원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규모는 대개 20~30명 정도이고, 많을 경우에는 50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다. 두레에 가입한 성원을 “두레페” 또는 “두레꾼”이라 불렀다.

이처럼, 두레가 조직되는 데에도 몇 가지 원칙이 존재했었다. 첫째, 여성은 원칙적으로 두레 조직에서 배제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두레가 남성의 노동대상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두레가 성인 남자 노동력을 1단위로 하여 조직되는데, 여성 노동력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미성년과 노인층 또한 두레 조직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미성년과 노인층의 노동력이 성인 남자 노동력을 1단위로 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두레조직은 행정단위가 아니라 자연마을 단위로 조직되었다. 각 자연 마을에 1개씩의 두레가 별도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넷째, 한 마을의 성인 남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가입하였다. 두레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제재가 마을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가구당 1인씩 의무적으로 두레꾼을 내야 한다는 강제가 가해지기보다는 가구당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다.



사리현동에서 바라보이는 북한산



문봉동의 빙석촌, 안촌마을 입구

일반적으로 두레의 역원은 두레를 대표하는 총책임자인 영좌(領座)[좌상(座上), 행수(行首), 영수(領首), 반수(班首), 좌장(座長)]와 영좌를 보좌하는 도감(都監)[공원(公員), 집사(執事), 소임(少任)], 작업장에서 작업 진행을 책임지며 농기의 기수를 맡는 총각대방(總角大方)[수총각(首總角)]과 총각대방을 보좌하는 조사총각(調查總角)[청수(青首)], 두레군들의 출석과 두레의 회계를 맡아보며 호미씻이와 농약을 관리하는 유사(有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를 감시하며 농작물을 보호하는 방목감(放牧監) 등의 역원¹⁴⁾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마다 두레 역원의 구성에서 차이가 보이고, 같은 지역이라도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두레 역원을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양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마을이나 두레를 책임지는 영좌나 좌상, 영좌나 좌상을 보좌하는 총무, 그리고 심부름꾼인 조사가 반드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레 역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었으나 특별한 유고 사항이 없는 한 잘 교체되지 않았다. 두레가 조직되는 시기는 대개 모내기가 끝나고 김매기가 시작되는 시점 중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레 일으키는 시기는 모내기의 완료 시점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3) 두레노동

두레가 하는 노동의 종류는 지방에 따라 관개, 모내기, 김매기, 수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관개, 모내기, 김매기를 포함하는 경우와, 김매기만 포함하는 경우¹⁵⁾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진다고 하지만,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양지역에서도 두레의 주노동대상이 김매기에 집중되어 있다.

14) 신용하, 위의 글, 225~226쪽 참조

15) 신용하, 위의 글, 230~231쪽 참조

김매기는 그 횟수에 따라 초벌(애벌), 두벌, 세벌로 나뉘어진다. 김매기 시기는 지역마다 이양시기가 다르므로 지역적 편차가 보인다. 하지만, 대개 초벌은 모내기 끝내고 20일 후나 한달 뒤인 6월 초순에, 두벌은 초벌 뒤 1주일 후나 10일 뒤에, 세벌은 두벌 뒤 10일 지나서 하였다. 김매기 작업은 호미질과 손 훔치기로 구분되는데, 초벌(또는 애벌)은 호미, 두벌·세벌은 손을 주로 이용하였다. 호미를 “논호미” 또는 “논을 메는 호미”라고 불렸으며, 일반적인 밭호미보다 호미날 크기가 배 이상이나 컸다.

호미매기는 논에 물이 없으면 땅이 단단하여 김매기를 하기 힘들고 반면 물이 너무 많으면 흙탕물이 되어 잡초를 뽑기 어렵기 때문에 논에 물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김을 매게 된다. 김을 매는 방식은 호미로 잡초가 있는 흙 부위를 찍어 호미가 깊숙이 들어가면 그 호미를 왼손으로 함께 떠서 흙과 함께 덮는 방식으로 매었다. 그리고 김매는 작업 방식은 논이 생긴 모양과는 상관없이 논에 일렬로 줄을 서서 앞으로 천천히 매어 나가는데, 일정 부분까지 매어 나가게 되면 뒤돌아서 김을 매지 않은 곳으로 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나선형 형태를 띠고 있다. 애벌을 매고 나면 어린 모가 헷볕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해 논에 다시 물을 대 놓는다. 손 훔치기는 “못논 훔친다”라고도 하는데, 벼 주위에 있는 뽑은 잡초를 벌로 밟고 양손으로 흙을 평평하게 고르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수 때 벼베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두레의 공동 노동은 보통 새벽 5시 경인 해뜰 무렵부터 시작하여 저녁 늦게 까지 계속되었다. 두레의 출역이 있는 날에는 북잽이나 징잽이가 동네를 돌면서 북이나 징을 쳐서 집합을 알리었다. 두레꾼들은 이 신호에 따라 작업장으로 바로 나가기 보다는 김매는 집 마당에 집결하여 대오를 맞추어 작업장으로 나아갔는데, 아침은 마을의 사정에 따라 본인이 식사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김매는 집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일단 집합 장소에 집결하면 두레풍물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일터로 나갈 때 대오의 맨 앞에는 농기를 앞세우고 그 뒤를 팽과리, 제금, 징, 장구, 북, 호적 순으로 농악이 뒤따랐다. 농악은 상쇠의 인도하에 한 조를 만들어 작업장에 도착할 때까지 강렬하고 전투적인 독특한 리듬으로 “길군악”이라는 행진 주악을 두드렸다. 대개 행진 중 4채기락이나 12채기락을 치면서 나아갔다. 그 다음에는 일반 두레꾼들이 호미를 뒤에 차고 농악에 맞추어 행진하였다.

두레떼가 작업장에 도착하면 좌상은 농기를 꽂아 두고서 두레일을 지시하는데, 그 전에 농기 아래서 다시 한번 풍물을 친 후 작업에 들어간다. 작업방식은 호미매기에서 설명하였듯이 나선형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이를 “텀배치기”라고도 한다. 작업 중 두레꾼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일꾼이 “모개비”라고 부르는 선창자로 지정되어 먼저 선창을 해서 ‘먹이면’ 두레꾼들은 작업을 하면서 일제히 합창으로 ‘받어서’ 따라 불렀다. 이때 불리는 노래로는 나중에 송포면 호미걸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긴소리, 사두여, 양산도 등이 있다.

두레 작업에 따른 식사는 하루에 보통 5회 있었다. 두레 작업이 시작된 지 2~3시간이 지나 10시 경이 되면 새참이 나온다. 새참은 보통 술과 간단한 식사 정도로서 집안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정오가 되면 점심이 나오는데, 점심은 들판에서 먹는 경우와 마을로 돌아와서 먹는 경우가 있다. 일터나 마을이든지 점심 식사를 마치면 반드시 한 차례 농악을 벌이었으며, 이 농악에 맞추어 두레꾼들은 춤을 추고 돌면서 논매는 소리를 합창하였다. 농악의 한 판이 끝나면 낮잠을 자는 차례로서 두레꾼들은 나무 그늘을 찾아서 약 1시간 정도 오수를 즐긴다.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2~3시가 되면 또 새참이 나오며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저녁은 마을로 돌아와서 김매는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각자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한다. 두레의 하루 공동노동이 끝나고 저녁 해질 무렵에 마을로 돌아올 때는 아침에 출역할 때와 마찬가지로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길군악에 맞추어 돌아온다.

하루 동안의 총노동시간은 보통 12시간 이상 되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노동시간은 약 8시간 정도이고, 나머지는 공동 식사와 공동휴식의 시간이었다. 두레 논일의 분량은 초벌, 두벌, 세벌에 따라 각기 달랐지만, 초벌의 경우는 대개 1마지기에서 1마지기 반까지, 두벌의 경우는 2마지기 정도까지, 세벌의 경우는 3마지기까지 가능하였다.

(4) 두레놀이

두레에는 반드시 농기와 농악이 있었다. “농기” 또는 “농상기”라고 불리는 두레기는 지역에 따라서, 심지어 고양 지역에서도 마을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지만, “농자천하지대본”, “신농씨유업건농지기”, “제일흥농지기” 등의 글자가 써여진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대형 깃발이다. 이러한 글자 외에도 농기에는 마을명과 연도가 표기된 경우도 있다. 연도

는 농기가 만들어진 시기로서 두레의 위계를 나타내며, 마을명은 두레마을의 이름을 나타낸다. 또 농기 둘레에는 삼각형 모양의 “지네발”을 달고 있다. 그리고 농기가 바람을 받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논두둑에 고정시키기 위해 깃대의 4/5 지점에 3가닥의 주름을 매달아 놓았다. 전체적으로 농기의 크기는 세로가 2~3자 반까지, 가로가 15자~20자 사이였다. ‘대나무’로 만든 깃대에 농기를 다는 것을 “옷 입힌다”라고 한다. 이 깃대도 높이가 6~7미터에 달한 것도 있다. 그리고 깃대 끝에는 “꿩장목”이라고 부르는 꿩의 꼬리깃털을 모아 만든 봉을 달고 그 밑 양편에 용머리를 새겨서 단청한 용두를 달았다. 꿩장목 밑에는 총을치로 장식을 하였다. 총을치는 “칡을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기고 하얀 속을 가는 실처럼 갈갈이 찢어 붉은 물을 들여 장목 바로 밑에 매단 것”¹⁶⁾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농기는 두레꾼들이 작업을 나갈 때 맨 앞에 서서 행진을 선도하였고, 작업 중에는 논둑에 꽂혀져 작업의 개시와 작업 중임을 알리고, 또한 작업이 끝난 후에 마을로 돌아오는 두레꾼들을 선도하기 때문에 두레의 상징이자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농악에 사용되는 악기는 기본적으로 팽과리, 제금, 징, 장구, 북, 호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악 악기는 지방에 따라서 악기 연주자나 배역을 배치하는 숫자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농악의 실질적인 지휘자는 팽과리 잡이인 상쇠이다.

한편, 두레와 관련된 의식과 행사로는 대표적인 것이 ‘호미모둠’과 ‘호미씻이’가 있다. 고양지역에서는 호미모둠이라는 의식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민속행사였다. 호미모둠은 두레의 공동작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두레꾼들이 어느 한 자리에 모여 역원을 선출하고 작업의 준비를 완료한 날에 각자의 호미를 모두는 의식이다. 두레꾼들은 두레 작업 기간에 작업장에 갈 때 호미를 농청에서 받아 가지고 나가고 하루의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호미를 다시 농청에 모두는 것이 관행이었다. 호미씻이는 김매기를 모두 끝낸 후에 두레의 공동작업의 성과를 총결산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벌이는 민속행사이다. 대개 호미씻이는 마을내의 산구릉이나 마을 옆의 넓은 들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 시기도 대개 칠월 칠석 전후로 하여 개최되는데, 고양지역에서는 송포 호미걸이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세배”와 “두레싸움”이라는 민속행사도 있었다. 마을 두레의 위신에 따라 농기에도 위신에 차이가 있었다. 흔히 “선생두레”, “제자두레” 혹은 “영좌두레”, “조사두레”라고 하는 차이인데, 상대편 두레와 마주쳤을 때 기를 숙여 인사하는 것을 기세배라고 한다. 기세배는 나중에 난 두레가 먼저 난 두레에게 기가 땅에 끌리지 않을 정도인 45도 정도 한바퀴 또는 세바퀴를 돌면 그 담례로 먼저 난 두레가 가볍게 기로 인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이 경의를 표하는 예를 갖추지 않으면 모역과 멸시로 간주되어 두레꾼들 사이에 두레싸움이 벌어진다.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경찰이 개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격렬하게 이루어진다. 아무리 심한 싸움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두레싸움으로 인하여 마을간, 개인간 단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5) 두레회의

두레와 관련된 회의는 김매기 이전과 김매기 이후로 구분되어진다. 김매기 이전 회의는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예비 모임의 성격을 갖는데, 고양 지역에서는 이를 “두레 일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매기 이전 회의에서는 두레 역원의 선출, 김매기 작업 순서, 두레셈 기준 결정, 농악기 보수 및 구입, 악기 연습 등이 이루어진다. 두레꾼이라면 모두 이 모임에 참가를 하여야 한다. 모임 시기는 모내기가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서 총무나 구장 등의 통문에 의해 모임 시기가 결정되므로 일정하지 않지만, 대개 모내기가 끝나고 김매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초순 경이라고 볼 수 있다. 모임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장소도 자연히 시원한 바람이 드는 정자나무나 낮은 산 두루터기 등에서 이루어졌다. 가끔 구장(현재 통장)집에서도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김매기 이후 회의는 대개 음력 7월 칠석이나 백중을 전후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날을 “호미씻는 날”이라고도 표현한다. 이 모임의 목적은 한해 농사의 정확한 셈과 악기 보수, 김매기 종료에 따른 노동의 피로를 풀기 위한 한바탕 놀음에 있었다. 모임 장소는 김매기 이전 회의와 미찬가지로 마을내의 산 두루터기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두레 노동의 종료에 따른 결산은 총무가 장부에 기재한 것을 근거로 하여 마지기당 계산을 하는데, 그 공임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날 논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내놓고 논이 적은 사람은 돈을 찾아가는 편이었다.

16) 주강현, 1995, 「두레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219쪽.

3) 기타 공동조직

한국 농촌사회에서 공동노동을 위한 조직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두레 이외에도 품앗이와 계를 들 수 있다. 품앗이는 한국 농촌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농업노동력 동원 형태로 촌락내의 농민들이 노동을 상호 교환하는 결사체이다. 두레에 비해 조직이 소규모이며, 비강제적인 노동교환조직으로서 노동력 동원에 있어서 협연이나 인근의 친소관계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대체로 품앗이는 자연마을 내에서 친소관계, 친족관계, 농가계층, 지역적인 균린성 등에 의하여 조직이 짜여지는데¹⁷⁾, 기계화된 오늘날에는 임금제 노동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농촌 사회에서 노동력의 호혜적 교환을 통한 협동관행을 찾을 수 있다. 참고로 1998년 고양지역의 경지면적 현황을 보면, 총 경지면적이 6,227ha로서 논이 3,027ha, 밭이 3,200ha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가 가구수도 전체 5,956가구로서 이에 종사하는 인구는 24,220명(남 12,069명, 여 6,227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98년도 농업용 기계 보유수를 보면, 경운기(2,377), 트랙터(957), 이앙기(1,142), 수확기(435), 동력방제기(1,096), 양수기(1,234), 탈곡기(29), 건조기(309), 파종기(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농업기계화 수준이 상당부분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경작을 하면서 가족노동력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이웃끼리 품을 교환하여 농사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품앗이의 형태가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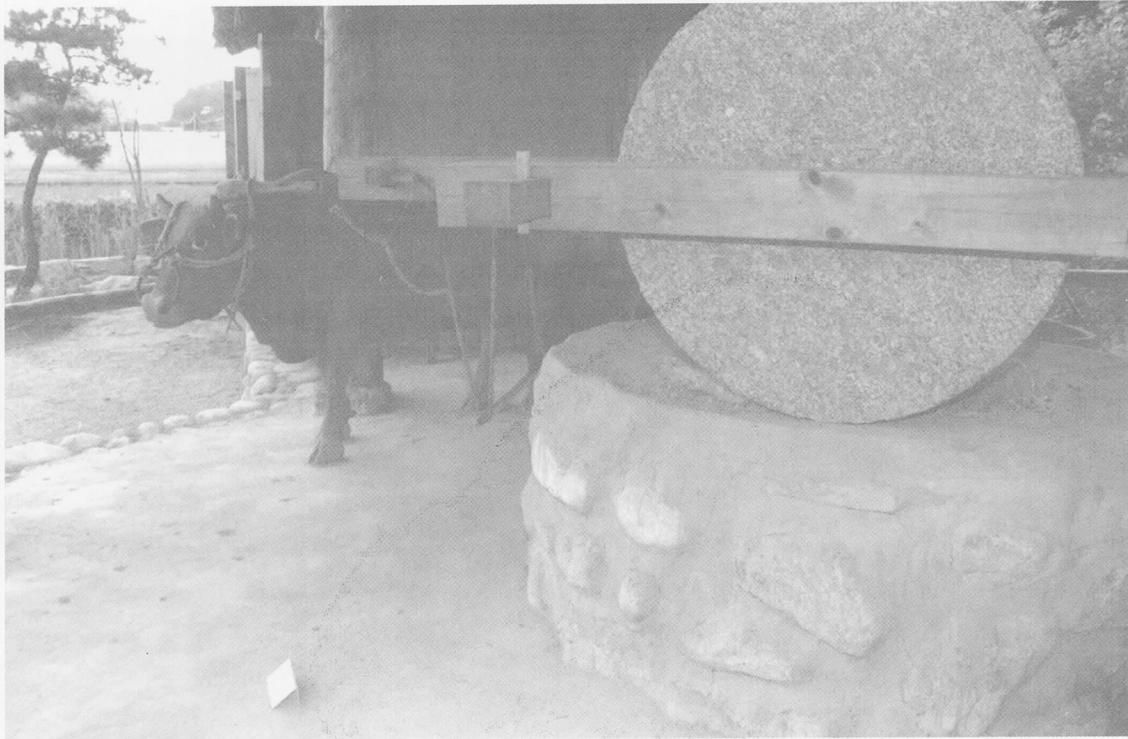


원흥동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야외 전시장의 농경기구

계도 미찬가지로 농촌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발생, 유지되어온 촌락내의 비공식적 조직이다. 그 활동도 비교적 활발하고 성원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계는 마을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여 명칭을 달리하여,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보고서『朝鮮の契』에 따르면 그 종류만도 48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¹⁸⁾. 계의 종류를 크게 보면, 관혼상제의 계(喪契, 葬契, 祭需契, 屬親契, 婚契, 相助契 등), 친목계(宗契, 門中契, 同甲契 등), 공동이용의 계(大同契, 堤防契, 農桑契 등), 공동구입 목적의 계(송계, 미싱계, 광목계 등), 식리목적의 계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계의 조직은 대체로 자연마을 내의 거주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계의 구성원은 매우 다양하여 적게는 수명에서부터 많게는 백 여명을 상회할 때도 있다. 대체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계나 촌계 등은 구성원 수가 많고 상호부조나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계는 그 구성원

17) 김택규, 1991, 『한국농촌세사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380쪽.

18) 조선총독부, 1926, 『朝鮮の契』, 6쪽.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야외 전시장의 연자방아

수가 적다 할 수 있다. 고양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거나 혹은 전승된 계의 종류를 보면 대개 관혼상제의 계인 “상포계” 혹은 “상두계” 등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고양 지역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계조직이 급속히 소멸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의 내용도 변질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죽음을 다루는 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예전에는 인간의 죽음을 처리하는데 있어 마을 공동으로 상례 및 상례 도구들을 관리하였지만, 이제는 죽음이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두레와는 달리, 품앗이와 계는 이처럼 특정의 개인적인 이해를 우선으로 반영하며, 그것이 공동의 조직체 아래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반대급부를 교환하려고 임의적으로 조직한 결사체의 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4. 맷음말

이 글은 1990년대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한 고양이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1990년 이전까지 전승된 민속 중에서 공동노동조직체계의 복원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고양 지역이라는 특정 공간 속에서 공동노동조직이라는 특정 내용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동노동조직에 영향을 미친 여러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변화를 함께 고찰하여야 분명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요인보다는 어떻게 공동노동조직이 운영되었는가라는 측면에 초점이 더 치중되어 있다. 또한 공동노동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1차적 자료 성격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고양 지역에서 보이는 몇몇 공동노동조직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고양 지역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공동노동조직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야외전시장의 디딜방아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야외 전시장의 새끼틀

첫째, 품앗이와는 달리, 두레는 순수한 노동력의 등가적 교환에서 출발하였지만, 그것이 차츰 변질되어 화폐관계로 대체되어 나갔다. 고양 지역에서 널리 성행한 두레에서도 그 흔적이 조사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둘째, 자연마을 단위로 두레가 조직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농촌 사회에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고양지역에서는 자연마을 단위의 독자적인 농기와 풍장을 갖춘 두 마을 이상이 합동으로 풍장을 치며 노는 합두레 형태의 두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두레에 가입할 수 있는 성원 자격이 대개 강제적이고 의무적이지만, 고양 지역에서는 두레에의 가입이 의무적이 라기 보다는 선택 사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가구당 1명씩 두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두레에 가입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여타 지역에서는 두레에의 가입과 탈퇴에는 특별한 통과의례가 있다고 보고되지만, 고양 지역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가입의식이나 탈퇴의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섯째, 김매는 방식에서 여타 지역과 차이가 나고 있다. 대개 일렬로 해서 김을 매어 나가지만, 고양지역에서는 논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나선형의 김매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고양 지역의 공동노동조직에서 보이는 몇 가지 선택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 방면에 대한 조사 연구 가 많지 않고 또한 조사사례가 적은 관계로 자세한 논의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조사 사례의 증가에 따라 보다 일반화된 진술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계속적인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레를 포함한 공동노동조직은 논농사지대의 농촌 사회 어디서나 널리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작업 공동체 였으며, 일제 강점기 동안에 많이 소멸되고 변질되었지만 경기 지역을 포함한 중부 이남의 농촌사회에서 널리 볼 수 있는 노동조직이었다.